

대한민국의 심장 Incheon!
The Leading City
경제수도 인천



미추홀 인천 2100년 600년



BC 18년경 미추홀에서 비류백제의 건국
1413년 10월 15일(태종13년) 인천 이름의 탄생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www.incheon.go.kr

2013

8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Cover Story



‘흔들림’
8월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기억입니다.
물결치듯 펄럭이던 태극기가
환호하며 거리를 뒤흔 사람이 그려했습니다.
흔들림을 통해
우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습니다.
미래를 향한 건전한 흔들림.
지금 인천의 모습입니다.
作 김기충 010-5131-3146



06



14



22



28



52

CONTENTS

04	소통과 화합	
06	Ice 인천	극지연구소 홍보관
10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
12		얼음 요리
14	Cool 인천	스킨 스쿠버
18	포커스	생활협동조합
22	인천 바다, 그 속살	만석부두, 그 안(內) 포구
28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1억조 갈비
32	아름다운 사람	청소년 문화기획자 정윤희
34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36	문화뉴스	커피콘서트Ⅵ 외
38	여름 특집공연	청소년을 위한 썸머 페스티벌
40	시정뉴스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 외
44	의정뉴스	이성만 제 6대의회 후반기의회 의장 외
46	생활정보	울목도서관 8월 문화예술 행사 외
50	이달의 서평	서평 일심일언 외
51	인천 사는 이야기	물의 나라 공주님 외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경인아라뱃길
58	모닝 커피 한잔	최미라 (사)여성인권 동감 대표

06 여름의 절정, 얼음 세상으로 탈출!

더위의 횡포에 고군분투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눈과 얼음 속 세상 극지연구소 홍보관, 차가운 은반 위 스케이팅, 온도는 내리고 몸의 기운은 올리는 여름철 음식까지. 더위를 움짱달짝 못하게 하는 얼음 체험법을 소개한다.

22 쏘그라든 바다 젓줄 만석부두

숨어 있는 포구를 이제야 '발견'했다. 만석부두에는 두 개의 포구가 있다. 쌍용기초소재 공장의 긴 담장을 끝까지 따라 가면, 출항신고를 관리하는 파출소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두가 있다. 다른 하나는 쌍용공장 정문과 만석낚시점 사이로 들어가면 작은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포구가 있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느낀 점, 평소 인천에 대한 생각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검암동 주민입니다. 검암 IC가 청라 IC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으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암동 계다가 검암역 바로 옆에 있는데도 청라의 이름을 붙이다니요.

공항고속도로 신설나들목은 지난 3월 국토부서 청라 IC로 명칭을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구민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청라에서 검암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비까지 와서 한 시간이나 지각했네요.

595번 시내버스의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95번 노선은 LH에서 시행하는 경명로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에 확인한 결과, 당일 출근시간대에 집중호우로 도로여건상 경서삼거리~서부공단입구방면의 공사구간에 차량들이 막혀 운행이 지연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여고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너무 더워요.

다음은 소속 학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6월부터 고3 교실이 있는 5층을 시작으로 층별로 순차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6월 중순 이후에는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날은 층별로 가동하고 오전 1시간, 점심·청소시간은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 가동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설정온도인 26~28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뒷문승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532번 버스 길병원, 간석자이, 올리브아울렛 등 이들 정거장에 뒷문 승차가 심합니다. 단속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류장에 현장 출장하여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하기' 관련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동 구간은 출근 시간대 승객의 증가로 뒷문으로 승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근시간대에 모래내시장에서 두 대가 출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작전초등학교 앞 과속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단속 CCTV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이라도 꼭 설치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에는 해당 관할 구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검토,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속방지 단속 CCTV는 관계기관인 경찰청과 추후 협의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서울에서 부평으로 이사 온 신혼부부입니다. 며칠 전 북구도서관에 갔는데 간행물은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EBS 교재를 빌렸었는데, 인천에서는 왜 안 되나요.

북구도서관에서 확인한 결과, EBS 교재는 월별 간행물로 1~2권 정도만 비치되어 있어 다른 도서관 방문객들을 위해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행본 등 기타 책은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할기관인 인천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더 살기 좋은 서구가 되길

독자 한진화(36·서구 연희동)



한진화님은 서구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서구로 터를 옮긴 지 4년. 조용하고 쾌적하여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서구가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제 2의 고향 같은 존재. 전라도에서 살다가 중학생 때 인천으로 와 이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처음 터를 잡고 오래도록 살아 온 계양 구석구석에 나의 삶이 흐르고 있다. 그런 인천이 익숙하고 편하고 정겹다.

〈굿모닝인천〉이 좋은 이유 시청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굿모닝인천〉을 알게 됐다. 평소 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활 정보와 문화공연 정보를 상세히 알려줘서 좋다. 인천의 오래된 공간, 맛집에 대한 기사도 유용하다. 한번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서구는 살면 살수록 정이 드는 곳이다. 조용하고 쾌적해서 아이 키우며 살기 좋다. 주민으로서 서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교통이 더 발달하고,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명소가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여름의 절정,
얼음 세상으로 탈출!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덥다. 에어컨 바람만 벗어나면 '혹'하고 더운 공기가 덤벼든다.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릴 방법은 없을까. 더위의 횡포에 고군분투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눈과 얼음 속 세상 극지연구소 홍보관, 차가운 은반 위 스케이팅, 온도는 내리고 몸의 기운은 올리는 여름철 음식까지. 더위를 움짱달짝 못하게 하는 얼음 체험법을 소개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과 얼음이 빛은 세상, 극지연구소 홍보관

인간의 구애를 거부한 남극과 북극은 권력 가르기의 무대였다. 19세기에 시작한 극지 선점의 욕망은 피여리를 북극점에 아문센을 남극점에 다다르게 했다. 과거 극지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복의 대상이었다면, 오늘날 극지는 인류의 생존과 연결된 연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2002년 ‘북극다산과학기지’,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만들고, 2014년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앞두고 있다. 그 중심에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가 있다.

극지연구소 홍보관이 지난달 극지연구소 내에 개관했다. 눈과 바람이 언어의 전부인 극지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발길을 허락하는 미지의 세계. 이에 극지연구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극지를 폭넓게 이해하고 연구활동에 공감하길 바라며 홍보관의 문을 열었다.

홍보관은 연구소 본관 1층 로비에 270㎡ 규모로 조성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스크린에 시리도록 하얀 눈과 옥빛 빙하, 오로라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북극의 눈물’을 바라봐야만 할 때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웨들바다표범, 젠투펭귄, 북극곰 등 극지동물의 표본과 모형을 마주할 때는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짝하다.



홍보관은 극지 소개와 지리적 특성 · 극지의 환경과 생태 · 극지연구기관과 연구기기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의 코너로 꾸며졌다.

특히 극지에서 빙하를 시추해 연구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눈길을 끈다. 핸디현미경을 이용해 극지식물을 관찰하고, 북극진동과 한파, 결빙방지물질을 모의실험할 수도 있다. 세종과학기지의 생활이 담긴 영상과 전시물을 보면서는, 1분 거리에도 10년은 버틸 옷을 입고 나서야 하는 극지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

홍보관은 우선 3개월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방문객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당분간 15명에서 40명 규모의 단체 관람만 가능하다. 견학신청을 하면 홍보관과 함께 연구소 실험실을 둘러보고 극지홍보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극지, 그 미지의 세계로

지척의 시야도 가로막는 블리자드(Blizzard),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서린 옥색 빙하와 오로라, 어제의 발자국조차 지워버리는 날 선 바람. 미지의 아름다움이 지하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는 극지 땅 위에 선다면,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다.



극지연구소는 지구환경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극지역의 대기, 지질, 빙하, 운석, 해양환경, 생물 자원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기관. 극지연구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극지를 이해하고 연구 활동에 공감하도록, 일반인에게 극지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극지연구체험단(Pole to Pole Korea)’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북극연구체험단, 과학교사,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남극연구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현장체험,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주관의 극지연구논문공모전, 극지전시회, 강연회 등 대상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극지연구소 770-8400





그 안은 지금 한겨울.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흐르는 여름의 절정, 탈출할 곳이 필요하다.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동남스포피아는 인천에서 하나뿐인 아이스링크. 한여름 뜨겁고 텅텅한 공기를 가르고 들어선 아이스링크 안은 소름이 오싹돋을 만큼 차갑다.

투명한 얼음판 위, ‘스웁스웁’ 스케이트 날이 끌고 지나는 소리와 청량한 공기가 뒤섞여 한겨울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이곳은 연인, 친구, 가족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어우러지기 좋은 ‘즐거찾기’ 명소다. 함께 키득거리고 또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며 속정을 도탑게 쌓는다. 한 편에서는 피겨 스케이터가 우아한 몸짓으로 은반 위를 미끄러지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는 인천빙상의 산실이자 인천선수들이 유일하게 기대는 훈령장이기도 하다. 가로 57m, 세로 28m로 정규모적인 60m, 30m에는 못 미치지만, 93년 처음 생긴 이래 지금껏 인천빙상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박대성(53) 인천빙상경기연맹회장이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였던 그는 한때 문 달을 뺀 인천 유일의 아이스링크를 지켜냈다.



박대성 인천빙상경기연맹 회장

“후배들이 이른 새벽부터 땀 흘리며 연습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 안에서 인천의 첫 동계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인 이은별 선수를 비롯한 유망주들을 길러냈지요. 내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은별 선수는 대여섯 살 때부터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남들이 세 달 걸리는 걸 한 달 만에 배웠다. 밥 먹을래 스케이트 탈래, 물으면 망설임 없이 스케이트를 선택했던 그다.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는 제 2의 이은별을 꿈꾸는 선수들을 위해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

까지 링크를 열어 두고 연습시간을 배려해 준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다.

초보자라면 날렵한 스케이트 날에 의지해 얼음판에 설 수 있을지부터 걱정일터. 여기서는 인천빙상경기연맹 소속 강사들로부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스케이팅을 배울 수 있으니 염려할 필요 없다. 정규강습 종목은 스피드(쇼트트랙)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으로, 만 6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반 20명을 담임제로 교육한다. 강습은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월·수·금에 있으며 강습료는 12만원. 헬멧은 무료로 대여해주나 스케이트와 장갑 등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어야 한다.

문의 :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 814-1331



기운은 내리고 기운은 올리는,

얼음 요리

덥다. 기운은 쪽 올라가는 데 입맛은 뚝 떨어진다. 하지만 면발이 탱탱하게 살아 있는 면 요리, 새콤 달콤 과일과 아삭아삭 얼음이 씹히는 음식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체감온도는 뚝 떨어뜨리고 몸의 기운은 확 올리는 얼음 요리 열전.

나른한 오후 확 깨우는, 수박냉면

냉면의 계절이 왔다. 요즘 같은 날엔 서걱서걱한 살얼음이 둥둥 뜬 시원한 냉면 생각이 간절하다. 한두 번 젓가락질 하다보면 더위가 저 멀리 달아나고 없던 식욕도 슬슬 동하는 맛. 맛있으면 그만인데 평양냉면, 함흥냉면 등 출신 성분도 다양하다. 인천 출신의 화평동냉면은 지름이 30센티미터에 가까운 세숫대야처럼 생긴 냉면그릇으로 유명세를 탔다.

화평동 냉면거리에 있는 '일미 화평동 냉면'에는 세숫대야 냉면의 명성을 가볍게 물리친 수박냉면이 있다. 과즙이 철철 흐르는 빨간



속살에 파고든 냉면은 보기도 먹음직스럽다. 송송 쓸어 듬뿍 올린 야채와 탱탱한 면발에 고추장 양념을 쓱쓱 비벼 먹고, 여기에 수박을 곁들인다. 비빔냉면의 매콤함과 수박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아낸다.

홍경애(60)씨는 18년 전 이곳에 냉면집을 열어 7년 째 수박냉면을 선보이고 있다. 냉면거리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일하단다. 달고 맛있는 수박을 쓰고 '내가 맛있어야 손님도 맛있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게 맛의 비결. 수박 반 통에 냉면을 넣은 수박냉면이 1만원, 수박 조각을 넣은 냉면수박은 7천원으로, 가격은 수박값에 따라 변동이 있다. 문의 : 일미 화평동 냉면 772-0040

얼음 동동 가슴속까지 시원한, 냉짬뽕

요즘 같은 날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밥과 국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다. 한여름 무더위에 입맛을 잃었다면 냉(冷)짬뽕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자.

짬뽕은 뜨끈하고 맵싸해야 제격이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차가워서 바짝 긴장하게 되는 얼음 동동 띄운 냉짬뽕이 여기 있다.

중국요리집 '만다복'은 차이나타운에서는 유일하게 냉짬뽕을 여름특식으로 내놓는다. 뜨거워야 할 음식을 차게 만들었으니 제맛이 날까, 하는 생각은 아주 잠시. 쫄깃쫄깃 탱탱한 면발에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육수는 목으로 넘어갈 때 알싸한 모미가 있다. 만다복의 우수삼(47) 주방장은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매일 4시간 육수를 달이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또 같은 요리라도 단골 손님의 경우 그 입맛에 따라 재료와 맛을 달리하며 정성을 들인다고 했다. 먹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맛이 진하게 배인 짬뽕 한 그릇에 마음까지 든든해진다. 문의 : 만다복 773-3838

얼음 소스가 자박자박, 유린돈가스

타닥타닥 튀겨 낸 바삭바삭한 돈가스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식사 메뉴. 돈가스가 여름을 맞아 얼음소스가 자박자박 깔린 유린돈가스로 시원하게 변신을 했다.



동춘동에 있는 '청담왕돈가스'. 노릇하게 구운 두툽한 돈가스는 당장이라도 한입 베어 먹고 싶을 만큼 먹음직스럽다. 여기에 맵싸한 청양고추와 파릇파릇한 비타민순, 청경채순, 적양무순 등을 버무린 샐러드를 듬뿍 얹어 싱그럽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 살얼음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여 상큼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더 했다. 튀김옷이 눅눅해지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얼음 소스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돈가스의 기름기를 잡아줘 오히려 뒷맛이 깔끔하다.

이곳의 음식은 중식·양식 요리사 10여 년 경력 홍진선(33) 사장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는 고객이 만족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 살얼음 소스를 얹어 상큼함을 두 배로 끌어올린 유린돈가스도 그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살얼음이 소복이 쌓인 노릇노릇한 돈가스, 어디 생각이나 했을까.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맛 봐야 할 여름음식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가슴 설레는 일이다.

문의 : 청담왕돈가스 815-1357



수중호흡, 잠수하며

신세계를 즐기다

무더위가 기승이다. 가마솥 더위로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기 십상이다. 용광로처럼 데워진 땅과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럴 땐 물고기처럼 시원한 물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스킨 스쿠버는 심연의 바다를 유영하는 바다생물처럼 자유자재로 헤엄치며 활활하고 신비한 미지의 바다세계를 체험하는 이색 스포츠다. 뜨거운 여름, 스킨 스쿠버로 더위를 날려보자.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김상호 i-view 청년기자

바닷속 세계는 아름다운 산호초,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춤을 추듯 일렁이는 해조류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유유자적 부드럽게 출렁이는 물을 보노라면 물고기처럼 고래처럼 바다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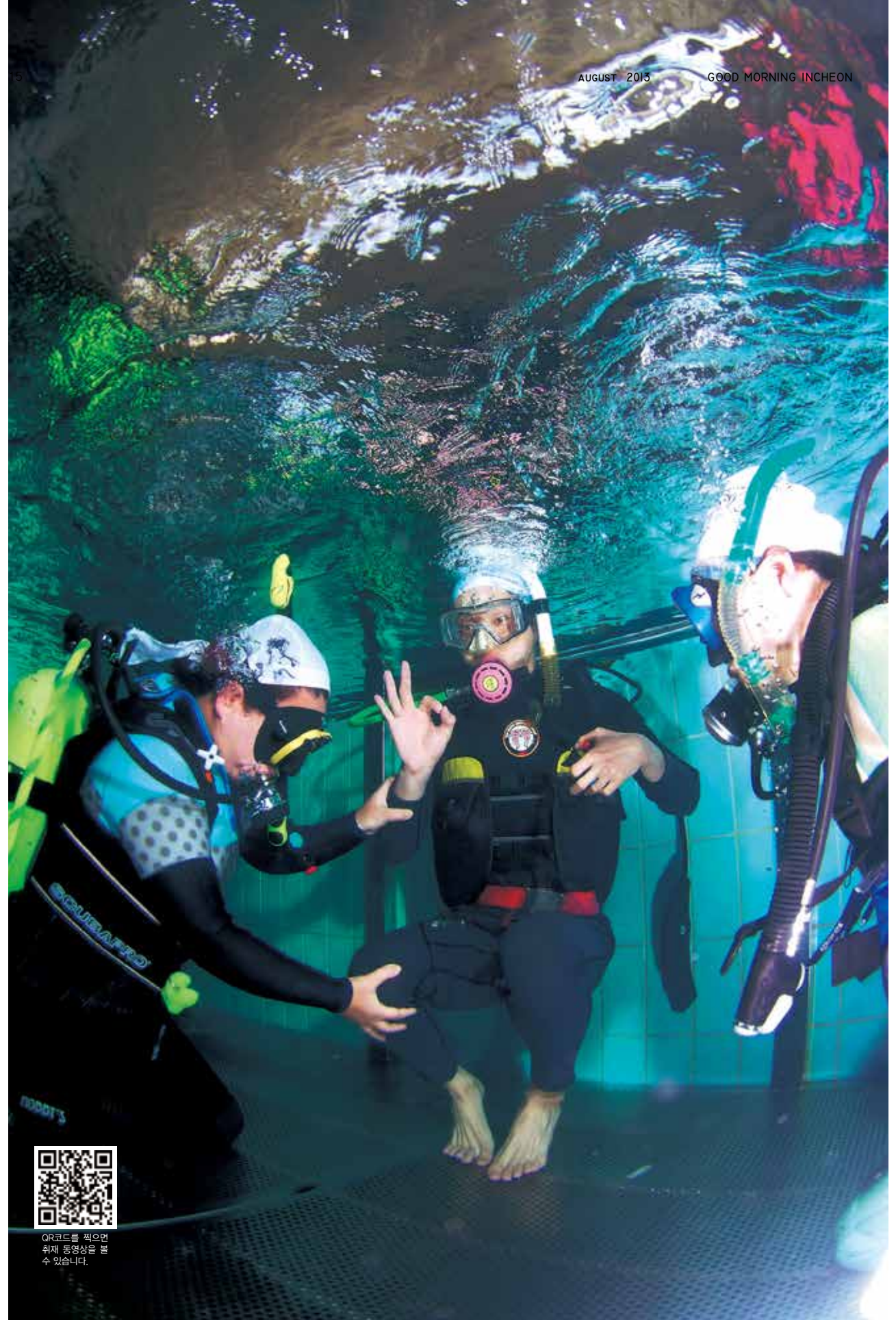
스킨 스쿠버는 수중 매력에 빠져 신비한 바닷속을 체험하는 레저 스포츠다. 수중호흡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물속을 잠수한다. 수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수영을 잘하면 유리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스킨 스쿠버는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을 체험하는 스포츠이기에 누구나 3일만 강습받으면 스쿠버가 될 수 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스킨 스쿠버 체험이 가능한 송도스포츠파크 잠수풀, 다이빙이 가능한 풀이기에 수심이 5m에 달한다. 그러기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바다로 나가기 전 이곳에서 잠수하는 법, 장비 착용법, 물에 대한 적응력 기르기, 마스크에 들

어온 물빠기, 수압평형 하기, 판치기, 스노우쿨링 등을 익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한다.

지난달 9일 송도스포츠파크 잠수풀에는 김포시 생활체육회 스킨 스쿠버 동호회 멤버들이 스쿠버다이빙 연습을 하고 있다. 경력이 제각각이지만 멤버들끼리 손을 맞잡고 잠수하기, 물속 유영하기, 스노우쿨링하기, 수중호흡기 착용법, 비상시 탈출하는 방법, 마스크에 들어온 물 빼기 등 실제로 바다에 나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스킨 스쿠버를 즐길 수 있도록 장비조작 방법과 물과 친숙해지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

수심 5m까지 내려 갈때의 기분은 짜릿하다. 잠수복에 따듯한 물이 스며드는 순간 겁도 나고 잠수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이 아닌 깊은 물속에서 눈을 뜨고 호흡한다는 게 신기하다. 겁먹었던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잠수하고 수영하면서 물속에서 나도 물고기 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신나고 즐겁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접하는 기분을 느낀다. 스킨 스쿠버는 잠수하기전 온몸에 30kg에 달하는 스킨 스쿠버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15kg 상당의 공기통, 8kg에 달하는 납벨트, 부력조절기, 수중호흡기 등의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공기통은 평균 30~40여 분 정도의 잠수가 가능하다.

송도스포츠파크에서 만난 이지연(35, 주부)씨는 “스킨 스쿠버를 하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특히 스킨스쿠버는 물속에서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압효과가 좋아 여성들에게 더 좋은 운동인 것 같다”며 스킨 스쿠버 예찬론을 펼친다.



스킨 스쿠버는 혼자하는 운동이 아니다. 2인1조, 또는 3인1조가 되어 미지의 바닷속을 안전하게 여행한다. 초보자는 꼭 경력스쿠버들과 짝을 이뤄 물속에서의 안전을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물속은 같은 곳을 들어가더라도 항상 느낌이 다르고, 풍경이 틀려 더 감탄스럽다. 다이버들이 수중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속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경치가 많아 황홀 그 자체다.

초보 다이버들이 바다속을 들어가려면 일종의 허가증인 ‘오픈워터(Open Water)’를 획득해야 한다. 이론교육, 3일간의 잠수풀 트레이닝, 해양실습 4회를 거쳐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스킨 스쿠버의 장점은 먼 바다나 해외로 나가 해양체험을 하기에, 단순한 운동이 아닌 여행을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겐 수영을 제외한 바다 레저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고급 스포츠라는 편견이 있지만 그것도 옛말이다. 스킨 스쿠버는 대중과 동떨어진 레포츠가 아니다. 정작 시작해 보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초보 다이버 되기

스킨 스쿠버가 되려면 누구나 3일간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강습은 교재를 활용한 강의, 잠수풀 트레이닝을 거쳐야 한다. 3일 강습에 드는 비용은 입장료, 초급다이버 발급비, 초급다이버 인증서, 장비사용료 등을 포함해 대략 30만원선. 해양실습비는 별도로 1일 15~17만원이 든다.

바다입수를 위한 첫 번째 자격증이 ‘오픈워터(Open Water)’다. 해양실습 4회, 강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인증서가 주어진다.

스킨 스쿠버를 배우려면 세계가 공인한 인증기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다. 동호인들을 모집해 싼 가격에 자격증을 내주는 사설업체들이 많지만 외국으로 바다 체험 여행시 인증을 못받아 바다입수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공인한 인증기관으로는 미국과 프랑스에 본부를 둔 패디(PADI), 시마쓰(CMAS)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사설기관에 비해 교육비는 약간 비싼편이다. 하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발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덜 불편할 수 있다.

있다. 장비는 보통 대여로 이용한다. 고성진 스킨 스쿠버 강사는 “스킨 스쿠버는 비싼 스포츠가 아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사고 나머지는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신비한 바다를 보며 탐험을 즐길 수 있는 스킨 스쿠버. 물속에서 예쁜 물고기, 아름다운 산호초, 물속을 비치는 햇살을 볼 수 있어 낭만이 가득하다. 바다속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새 여름은 훌쩍 저 멀리가 있다.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나만의 레포츠다. 무더운 여름 스킨 스쿠버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



송도스포츠파크 잠수풀 이용료는 일일 5천원, 공기통 대여는 8천원, 공기통 대여시 납벨트는 무료로 빌려준다.
문의 899-4850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 담아

‘소중한 먹거리’ 지킨다



먹거리 하나에도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신뢰를 근간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생협의 핵심정신은 상부상조다. 서로 돕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회라는 것을 깨닫는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푸른두레생협 안정적 물품 확보로 ‘가격폭동 남 얘기’

“오늘은 모내기와 소시지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오후엔 개구리 잡기, 소들에게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요.” 푸른두레생협 조합원들은 지난 6월 8일 쌀 생산지 견학차 충청남도 홍성을 찾았다. 오전엔 모내기, 오후엔 소시지 체험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중간 중간 아이들을 위한 깜짝 행사도 벌어져 오랜만에 시골마을은 왁자지껄했다.

푸른두레생협은 인천지역 생협이다. 93년 첫 출발했고, 조합원 수는 1만 4천여 명에 달한다.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 3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1차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1천500가지의 생활제(상품)를 판다. 매장은 인천지역 내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1차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제품, 2차 가공품의 경우 인체에 피해를 주는 유해, 화학제품을 첨가하지 않은 물건만 판매한다.

생협 농산물은 1년 전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농산물 폭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정적인 수매로 일정하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점이다. 푸른두레생협은 생활제 판매가격의 대부분을 생산자에게 돌려준다. 유통마진이 큰 일반마트

나 시장과는 작동방식이 다르다. 구매는 조합원만 가능하다.

푸른두레생협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모임, 마을모임, 문화활동 지원이다. 모임 활동을 통해 판매되는 생활제 장단점 분석, 조합원들이 원하는 생활제 등을 선정하고, 생산지 견학을 진행한다. 소모임, 문화강좌는 연수점 2층에 있는 생협카페에서 연다. 생협카페는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푸른두레생협에서는 공정무역 행사도 열고 있다. 제3세계에서 생산된 커피, 초콜릿, 올리브유, 설탕 등에 생산자 기금을 붙여, 제3세계 생산자들의 자립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푸른두레생협은 잉여금으로 지역 작은도서관을 후원하고,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815-2278



인천평화의료생협 믿고 치료한다

인천평화의료생협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생각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병원을 지향한다. 1989년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소속 의사 40명이 공동출자하여 평화의료원으로 출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를 주로 다뤘던 병원이었다. 1996년 지역주민 80명이 병원을 인수 ‘평화의료생협’으로 재 탄생했다. 의료생협은 기존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복지와 의료증진을 위해 설립된 병원인 만큼, 운영방식이 일반 영리병원과 크게 다르다. ‘의료생협 환자권리장전’ 등을 통해 환자 보호에 최우선의 관심을 쏟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과잉진료 및 투약을 하지 않는 것도 의료생협의 특징이다.

평화의료생협은 내과, 한의원, 치과, 가정간호사업, 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지역사회 노인문제,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 치매,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데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다. 또 항생제 비율이 낮고, 한약의 경우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에 병원 신뢰도가 높다.

김중선(55, 부평동)씨는 “다른 병원의 경우 환자와 의사의 상담이 충분하지 않는데 이곳에선 흔한 감기환자가 와도 세심히 신경쓰고, 진료비도 저렴하다”며 병원에 신뢰를 표했다. 치과도 주민들의 인기가 높은 진료과목. 치아를 살리는 보철치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의료생협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비 5만원을 출자금으로 내야하며, 현재 3천6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해 의료비가 할인된다.

문의 524-6911



icoop 인천생협 자체 농약검사로 제품 신뢰 높여

아이쿱인천생협(icoop)은 전국단위 연합생협이다. 물류를 통합해 물류비용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역단위 생협이 모였다. 농촌을 살리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쿱 인천생협은 98년 출발했고, 인천에만 4개의 지역생협이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 5만원과 매월 1만원~1만8천원 사이의 조합비를 내야 한다. 조합비를 내면 아이쿱이 운영하는 ‘자연드림’매장 물건을 조합원가로 살 수 있다.

아이쿱 인천생협은 친환경 농산물 제품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현지에서 농약검사를 했어도 아이쿱 자체에서 세 번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다. 자체 조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물건은 조합원들만 구입할 수 있다.

아이쿱이 운영하는 ‘자연드림’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인 설탕, 커피를 공정무역 기금을 붙여 판매한다. 공정무역 활동은 아이쿱생협의 함께하는 사회 활동 취지와 부합한다. 공정무역기금은 제3세계 생산자들에게 지원한다. 작년엔 필리핀에 설탕공장을 건설하는데 쓰

였다. 또 지역소모임, 마을모임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활발하다. 우리밀과 친환경 우유로 만드는 빵은 유통기한이 당일이다. 판매하고 남은 빵은 푸드뱅크나 미혼모 시설에 보내진다. 정육제품도 친환경사료를 먹고 항생제를 넣지 않은 제품이다. 아이쿱생협은 수매선수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농가가 생산하기로 약속한 농작물 가격의 10%를 미리 지급해 생산자가 영농자금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다.

문의 515-0733

인천대 생협 이익금은 장학금으로 환원

대학의 당사자인 학생, 교수, 교직원이 모여 대학구성원들에게 도움이되고자 만들어졌다. 조합비는 1만원으로 조합 탈퇴 시 배당금과 함께 반환된다. 대학생협의 조합원이 되면 식당, 매점 이용금액에 마일리지 1.5%씩 적립되고, 장학생 선발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1만1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생협은 대학의 식당, 매점, 자판기, 무인음식점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학생들의 장학금과 학교 기여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쫄그라든 바다 젓줄

만석부두

숨어 있는 포구를 이제야 '발견'했다. 만석부두에는 두 개의 포구가 있다. 쌍용기초소재 공장의 긴 담장을 끝까지 따라가면, 출항신고를 관리하는 파출소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두가 있다. 다른 하나는 쌍용 공장 정문과 만석낚시점 사이로 들어가면 작은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포구가 있다. 바로 그 포구를 처음 본 것이다. 남의 공장에 들어가는 길인 줄 지레 짐작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전혀 몰랐다. 파출소 쪽 포구는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성형을 했다면 조선소 쪽 포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썩얼 그 자체다. 그 포구에는 오랜 시간 바다를 젓줄 삼아 온 굴막이 있다. 바다 바람, 세월 바람에 스러진 굴막은 공장 담벼락에 기대 채 마치 어두운 굴(窟) 속에 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다.





© 김보섭



화도진도서관 제공

물때가 집합시간이었다. 살을 에는 겨울 새벽 바람을 맞서며 하나둘 포구로 모였다. “오늘도 지각생은 또 늦네”. 어린 자식들 때문에 배 떠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각생 아줌마가 멀리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수복호는 힘찬 발동을 건다.

배는 희뿌연 새벽 바다를 가르다. 판유리공장, 북성부두, 대성목재, 월미도가 옆으로 비껴간다. 금자엄마, 섭섭이 할머니, 넉순이 영배엄마, 화수동 꼬부랑 할머니, 경상도 할멈, 빼꾸기 할머니, 수열네.... 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 눈만 빼꼼이 내놓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다. 이들은 20년 넘게 한배를 탄 식구들이다. 너도나도 뱃질을 잘하는 수복호를 타려고 안달이다.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끼어 탔다. 입·출항신고가 허술하던 시절이었다.

자리 잡은 아낙들은 희미한 등불 아래서 쉿겨 온 도시락을 꺼낸다. 집을 나설 때는 온기가 있었는데 찬바람에 보리 주먹밥은 이미 쫄쫄 얼었다. 배 한 귀퉁이에 핀 연탄불에 데운 물을

밥에 붓고 김치를 찢어 먹는다. 그나마 오늘은 파도가 심하지 않아 불을 피울 수 있어 다행이다.

3시간 넘게 물살 헤쳐 간 배는 이작도 옆 작은 무인도에 머리를 들이댄다. 바다에 떠 있는 이 섬들은 굴까는 아낙네들에게서 이름을 받았다. 할아버지섬, 진달래섬, 참섬, 뽕아리섬, 개발섬, 돌때리는 섬....

상륙 후 흠어져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쪼새로 실 새 없이 바위를 쪼아댄다. 살집 좋은 굴이 딱딱한 껍질 속 마다 가득하다. 실 틈이 없다. 목마르고 허기지면 그냥 굴을 삼킨다. 섬 가득 바위 쪼개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손 빠른 사람은 하루에 80kg짜리 2,3포대씩은 거뜬하다.

오늘은 ‘묵세기’가 아니다. 당일치기다. 묵세기는 배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굴을 따고 다듬는 작업이다.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5박6일을 지낸다. 20여 명이 배 밑 어창에서 먹고 자고 한다. 발을 뻗을 공간도 없어 기대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비를 걸치지만 젖은 옷을 그냥 입고 잔다. 준비해 간 식량이 떨어지면 조갯살, 홍합을 캐서 국물을 만들어 먹는다.

굴 포대를 잔뜩 싣고 포구로 향하는 배는 그 무게 때문에 위험하다. 가끔 파도가 험하게 치면 다들 쪼그리고 앉아 교대로 물을 퍼내야 했다. 그나마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한번은 바다 한가운데서 기계가 고장 나 가마니로 돛을 만들어 섬으로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수복호 선장의 둘째 아들로 이제는 수복2호 선장이 된 최영식(64)씨의 빛바랜 회고담이다.

멀리 판유리 공장의 둥근 급수탑이 보인다. 포구에 거의 다 온 것이다.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 담장에 늘어선 굴막까지의 운반이 만만치 않다. 배에서 굴 포대를 끌어내리고 열기설기 역은 나무다리를 건너는 일은 위험하고 힘에 부친다. 잘못하면 포대와 함께 바닷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굴막 안으로 끌어놓았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다. 굴 까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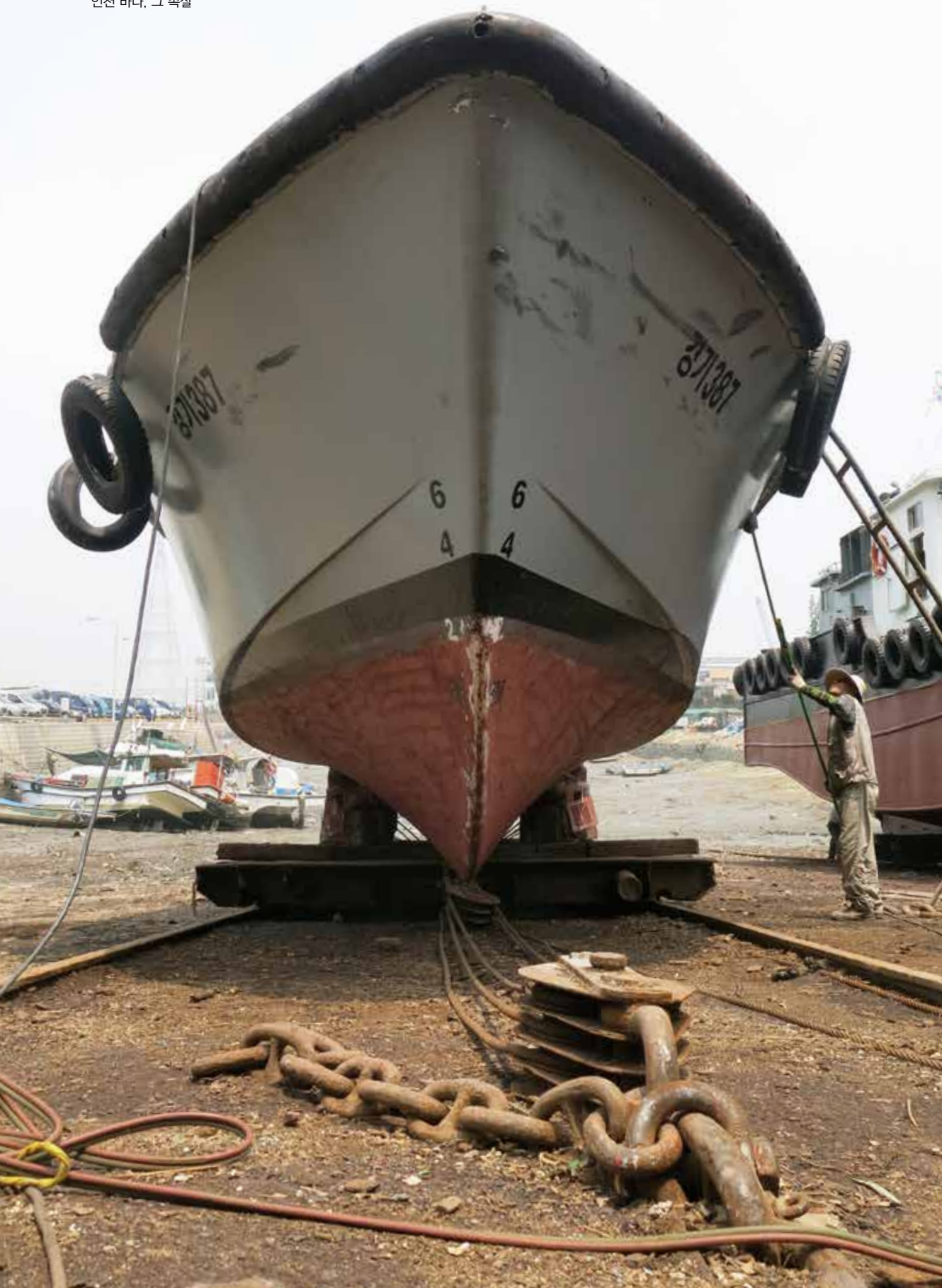
물론 굴 장사에게 바로 팔아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문이 박하다. 어떤 이는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식구들이 다 모여 굴을 깬다. 이도저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캐온 굴을 굴막에서 바로 깬다. 굴을 까자마자 바로 하인천역 근처로 달려가 노점을 펼친다. 물이 좋아서 내놓자마자 팔려간다.

굴막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30여 년 전에 한 두사람이 무거운 굴 포대를 이동하느니 포구에 움막을 짓고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짓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거적대기로 만들었고 후에 판자와 비닐을 사용해 ‘하꼬방’ 같은 임시거처 겸 작업장을 만든 것이다. 한창 많을 때는 굴 캐는 사람이 300명이었던 적이 있었다. 굴 파시였다. 그때 포구에는 40여 개의 굴막이 늘어섰다. 한 집에 두어 명씩 들어가 밤새 작업을 했다.

“명절이나 김장철에는 주문이 많아 집에도 못 가. 백중사리 때는 굴막 앞까지 물이 찰랑 거려 오도가도 못해. 그냥 굴막에서 촛불을 켜고 굴을 까며 밤을 지새곤 했지.”

45년 전 굴막에서 일을 한 넉죽이 영배 엄마(74)의 이야기이다. 그는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해 요즘 굴 따러 가는 대신 용돈벌이를 할 겸 조경 작업에 가끔 나간다. 갯벌에





서 하루 일하면 3, 4일 별이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겨울에는 진통제를 맞고서라도 다시 굴 따러 갈 맘이 있다.

바닷가에서는 닭 대신 갈매기가 새벽을 깨운다. 갈매기 우는 소리에 눈을 비비고 굴막 문을 열고 다시 배 타러 나간다. 굴막을 잠시 비우더라도 문단속을 단단히 해야 했다. 그곳에는 이불, 곤로, 옷, 호롱불, 라디오 등 귀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굴막에는 1호, 2호라고 글씨를 적어 놓거나 아예 문 앞에 문패를 달기도 했다.

만석포구의 굴막은 이제 폐허가 되었다. 거의 다 무너져 내렸다. 집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아직 쪼새를 놓지 못했을지라도 이곳에서 더 이상 굴 까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만석동 고가 밑 알루미늄새시 굴막으로 이주했다. 거기서 이제는 섬으로 나가 직접 굴을 따기 보다는 받아서 까는 일이 많다.

그렇다고 만석포구 굴막이 완전히 가동이 중지 된 것은 아니다. 서너 채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날이 차지면 몇 집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마저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화수부두-만석부두-북성포구를 잇는 포구둘레길이 입안되고 있다. 둘레길은 이 굴막 앞을 지나가게 된다. 누추하고 불편한 이 굴막은 철거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에 이 굴막이 없어지면 인천은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의 한편, 작게는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현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가슴에 와 닿는 그 무언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2008년 ‘수복호 사람들’이란 사진집을 낸 사진가 김보섭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만석부두는 한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밀줄 짝 그어질 만큼 큰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때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선들이 모여들었고 구한말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화도진으로 가려고 미국 슈펠트제독이 그곳에 내렸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수공장 조선기계제작소(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잠수정이 진수되기도 했다. 광복을 맞아 진수되지 못한 두어 척의 잠수정이 60년대 초반까지 이곳에 녹슨 고철이 돼 나뒹굴었다. 6·25 전쟁 때는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이 부두를 통해 인천으로 들어 왔고 휴전 후에는 원조물자들이 이곳에 하역돼 굶주린 우리나라 사람들의 뱃속을 달래주기도 했다.

만석부두는 이제 할머니의 쪼그라든 젓가슴처럼 말라비틀어진 채 조용히 한편으로 물러서 있지만 여전히 굴배 15척, 낚시배 30척 등 60여 척의 배를 품어주고 있다.

사진가 김보섭은 지난 2008년 사진집 <수복호 사람들>을 출간했다. 그는 인천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작업하며, 인천 중에서도 특히 인천 사람들의 생활의 냄새 짙은 삶과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인천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는다. 수복호는 인천 근해의 작은 섬으로 굴을 따는 아주머니들을 싣고 다니는 배다. 작가는 '굴 따는 배' 수복호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그 배의 선주와 굴 따는 아주머니들을 흑백사진에 담았다. 총 88장의 '곤곤한 바닷바람과 소금기가 진하게 밴' 흑백사진이 담겨 있다.





강화 토속 음식

새우젓국갈비의 구수한 맛

새우젓국갈비 맛은 결국 새우젓이 판가름한다고 할까? 돼지갈비야 어느 업소든 다 일등품을 쓸 수 있지만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강화 특산 새우젓은 따라 올 수가 없다. 또 그 새우젓을 어떻게 일등품으로 숙성시켜 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음식의 맛과 주인의 친절이 밥집 재산

장맛비가 쏟아지기는 해도 7월은 7월인지라 뭐 좀 냉한 음식이 없을까 하던 차에 동행 사진작가가 권한 곳이 강화읍 관청리 고려궁지 옆의 제법 오래된 묵밥집이었다. 시원하기로야 냉면이 제격이겠지만 여름이면 누구나 꼽는 냉면보다는 묵밥이 별미로서 좋을 듯해 우중에 행차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묵밥집에 당도하고 보니 주인이 한사코 면담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글로 쓰이고 하는 따위의 일이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었다. 그때 마침 함께 따라나섰던 강화문화원 사무국장이 여기저기 알아봐 연락이 닿은 집이 새우젓국갈비로 소문이 났다는 집 '1억조 갈비'였다. 냉한 음식을 찾아갔다가 거꾸로 더운 음식을 만나게 된 꼴이었다. 그러나 몸은 장마 빗줄기에 젖고 마음은 생각지 못한 낭패를 본 터라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는 차라리 칼칼한 젓국갈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에 무슨 열 많은 돼지고기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돼지고기를 다스리는 새우젓이 있으니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은 당치 않다. 차를 세우고 걸어 새우젓국갈비집이 있다는 골목길 입구로 들

어서다가 아니, 이 길은? 하고 놀랐다. 반갑기도 했다. 동문안길 21번길. 길 이름은 이렇게 붙었지만 틀림없는 용흥궁(龍興宮) 길이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문인 몇과 함께 '강화도령'으로 불리는 조선 25대 왕 철종(哲宗)의 잠저(潛邸)인 이 용흥궁을 답사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억조 갈비'는 그 골목 안쪽으로 5,60미터쯤 들어온 곳, 용흥궁 조금 못미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억조'가 관청리 468번지, 용흥궁이 441번지. 답사 때 이 길을 들어서면 서는 전혀 관심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아니면 혹 보았다 해도 기억에 둘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실로 우연히, 일이 생각지 않게 꼬이면서 와 앉게 된 것이다.

여주인 임경자씨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가름한 얼굴에 스스로를 공주로 부르는, 매우 밝은 성격을 가진 유쾌한 분이였다. 부모는 개



성에서 피난해 오신 분들이었다. 임씨는 강화여고를 나온 강화 토박이로 강화문화회 소속 시인이라며 ‘강화’를 세 번 연거푸 발음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더니 잡지 비슷한 책 한 권을 내놓으며 ‘함바 이야기’라는 자작시까지 보여준다. 그리고는 강화에 사는 인천문협 소속 한 여류수필가에게 전화를 걸어 어서 오라고 한다.

옛 인천의 원로 한 분이 ‘음식 맛도 맛있어니와 주인의 성의와 친절이 밥집의 재산’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인 임씨를 대하면서 ‘일억조 갈비’ 이 집이 그 말씀에 꼭 들어맞는 집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에 종업원도 천성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주인을 따라 닮은 것인지 역시 수더분하면서 밝고 친절이 넘친다.

소박하고 소탈한 맛, 입안에 구수하게 퍼져

몇 마디 나누는 사이에 이내 자칭 ‘어머니 손맛의 젓국갈비 원조’라는 이 집 간판 음식 젓국갈비냄비가 나와 불 위에 얹힌다. 근자에는 새우젓국갈비가 각지에 퍼져 웬만하면 다 이 맛을 보았을 테지만, 25년째 돼지고기와 갈비를 다루어 온 ‘일억조’의 젓국갈비 맛은 남다른 데가 있다.

우선은 주인공인 새우젓국과 돼지갈비가 참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다. 국물은 들뜬 듯한 단맛 대신에 다소 텁텁하고 옅은 염기가 느껴지는 정도였다. 언뜻 소박, 소탈하다고 할까. 그러나 그렇게 몇 숟가락을 넘기고 나면 비로소 깊고 구수한 맛이 입 안에 퍼진다. 다른 화학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흠뻑 무른 돼지 갈빗살은 입 안에서 흡족하게 녹는다. 국 속에 든 홍고추, 청랑고추, 호박, 감자, 파, 두부의 색깔도 좋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호사스럽다. 인삼 한 뿌리는 더 고급 영양을 위한 것인지…, 밑반찬으로는 또 하나의 강화 특산, 독특한 향미를 가진 순무김치가 단연 일품이다. 그와 더불어 호박무침, 부추김치, 풋고추 무침 따위도 갈비를 씹고 난 입을 썩 개운하게 가서 준다. 거기에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오며가며 들러 한 국자씩 건더기와 국물을 퍼주는 임씨의 다정함도 국 속의 깨처럼 고소한 몫을 한다.

“저는요, 우리 고향 강화의 토속음식인 이 새우젓국갈비를 본래 그 맛 그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저희 집 간판 음식으로 정한 거구요.”

원래 새우젓국돼지갈비는 고려 왕실이 몽고군을 피해 천도했을 때 왕에게 진상한 음식이라는 것이다. 강화 특산인 새우젓과 연관



시키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팔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 음식을 최근 강화군이 지역의 토속 음식으로 내세워 널리 대중화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식사 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넓은 홀에 두 줄씩 테이블이 놓였다. 특이하게도 의자는 무슨 옛날 중학교 때 것처럼 앉는 면의 나무 간격을 뚫 딱딱하기 그지없는 목의자다. 오랜만에 교실에 들어와 앉는 느낌이다. 재미있다. 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할 것이다.

홀에만 대략 40명의 손님이 앉을 수 있고, 홀 양쪽으로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방과 작은방이 있다. 한 번에 총 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다. 과거 예식장이 있어서 피로연 단체손님을 받을 때는 이 방들이 가득가득 찼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주방 구석에 걸린 큰 가마솥은 그때 피로연 국수를

삶아 내던 것이다. 건평만 110평이라는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다고 한다. 창살이나 대문 등은 한옥풍 모습인데 나머지는 편리를 위해 이리저리 개량해서 정체불명의 건축 양식(?)이라고 할 것이다. 바깥 담, 회벽 아랫도리에 바른 시멘트 위에는 난데없이 벽화를 그려 놓기도 했다.

어쨌든 8백 년 전 고려의 왕이 여기로 피신해 와 먹었다는 새우젓국갈비가 아침 일찍 인천을 떠나와 좀 전까지 낭패했던 마음을 활짝 풀어준다. 국물을 훌쩍이는데 마침 이 집 단골 손님인 관청리 터주 성일약국 대표와 그 일행이 들이닥쳐 삼겹살을 굽는다. 공교롭게도 그들 모두 고등학교 선후배 동문이다. 자연 소주 한잔이 건너오고 어찌고 한다. 그러자 보다 못한 임씨가 입을 연다.



한여름엔 ‘이열치열’, 더운음식이 더 시원

“1990년이 될 무렵 친정어머니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 못하겠으니 네가 한번 해보련?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죠. 남편은 직장에 다녔지만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인데, 내 성격 그대로 긍정적으로 이 일을 해 왔어요. ‘일터는 꿈터’ 이것이 내 생활 목표면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올려다봐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자. 이렇게 다짐해요. 마음이 천국 아닌가요?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 밥을 잡숫는 분,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기원하고요.”

아름다운 마음이다. 금실 좋은 남편은 직장을 접고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얼마 전 조기 축구팀에서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쳤다고 한다. 그래 요즘은 군에서 제대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10여 군데 단골들 식사 배달 차를 운전해 준다고 한다. 이참에 아들이 식당 일을 배워 대 물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집 일이다.

일어서려는데 또 자기 시동생이 그 유명한, 인하대와 대한항공에서 배구 선수로 명성을 날린 한장석 선수라는 말을 한다. 현관 앞 구식 공중전화 앞에 한 선수의 모습이 액자에 끼워져 있다. 역시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여기 있으면 별별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갈 것 같다. 비는 내리고, 갈 길은 멀고….

이열치열. 한여름에는 오히려 이렇게 더운 음식이 오히려 더 시원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착한 식당’을 나와 다시 인천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공연문화 ‘부흥’을 꿈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옛되어 보이면서도 선한 얼굴, 동그랗고 웃음 가득한 눈은 그 청년 참 착하고 인상 좋다는 느낌을 준다. 정윤희(28)대표는 좋은 얼굴과 어울리게 청소년 문화공연 기획 활동을 한다. 인천 청소년 문화사업을 체계화시키고, 그들이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

그 자신도 청소년 시절 연극배우가 꿈이었다. 고등학교 때 연극배우가 되고 싶어 청소년수련관에서 발성과 대사연습으로 구슬땀 꽤나 흘렸다. 대학도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가 문화예술경영으로 전공을 바꿔 졸업했다.

그는 20살 때 청년과 청소년이 모인 공연단체 ‘광끼’를 만들었다. 이때 청소년 퍼포먼스 공연을 기획했고, ‘내안의 또다른 너’라는 연극을 만들어 동인천 ‘씨알’ 소극장에 올려 연일 매진기록을 세웠다. 청소년 꿈을 소재로 한 웰 메이드 연극이었다.

그는 20세부터 꽤 많은 청소년 공연단체를 만들어보겠다는 신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뛰었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들이 공연을 하면 공연료가 싸 공연을 많이해도 돈을 벌지는 못했다. 그나마 출연료도 기획자와 출연자가 똑같이 나누는 실정이어서 항상 단체 살림은 쪼들렸다. 당시 김대표는 단체 운영을 위해 낮에는 기획자로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뛰며 운영비를 감당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연문화사업단 ‘j.company’는 2008년 시작했다. 한동안의 슬럼프를 딛고 다시 한번 청소년 공연문화의 꽃을 피워보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청소년 공연단체들이 설만한 무대와 단체를 섭외하는 일, 공연 컨설팅, 문화강의, 기획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인천청소년 문화공연 기획의 대부로 성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문화공연 활동을 마을에도 전파하자는 뜻에서 마을 기업을 세웠다. 문화의 소외지대인 마을에 문화를 꽃피우고 정착시키겠다는 뜻에서다. 그래서 마을기업 이름도 ‘꿈꾸는 놀이터 뜻’으로 지었고 가을에 마을축제도 열 계획이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좋은 영화도 상영하고, 어머니들을 위한 뜨개질 교실도 열어 마을기업 사무실을 동네 사랑방으로 바꿀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 문화공연 만해도 공연단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꿈의 길을 만들 생각이다. 그래서 경영학 공부도 하고, 기획사 모델에 대해 끊임없이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다. 젊은 청년의 도전과 희망이 사그라졌던 인천공연 문화의 부흥을 몰고 올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가스레인지가

뭐예요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사진 1은 지금부터 꼭 40년 전인 1973년, 인천 어느 집 부엌의 모습이 다. 마치 북한에서 살포한 체제 홍보 뼈라에 게재된 것으로 혼동할 만한 사진이다. 주거 개량 정책으로 지어진 시범주택인 듯한데 살림살이가 빈약해 보인다. 타일로 내부를 마감한 부엌에는 무쇠 솥과 양은 솥 그리고 곤로와 나무 찬장이 전부다. 천장에 달린 소켓에는 백열전구가 비어 있다. 개량은 했지만 여전히 아궁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엌이 낮게 설치돼 있어 장마 때는 종종 물이 스며들곤 했을 것이다. 인민복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 머플러를 둘러쓰고 밥을 짓는 저 여인은 가스레인지, 오븐,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정수기, 믹서 게다가 식기세척기까지 있는 오늘날의 주방을 상상이나 했을까.

인천에는 1968년까지 국군묘지가 있었다. 현재의 남구 세화초교 운동장 언저리와 선인체육관 아래 부분에 6·25 전쟁 때 전사한 국군 379위(혹은 358위)의 주검이 안장되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이곳에서 추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1964년 6월 6일 동아일보의 기사다. ‘제9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상오 10시 이곳 도화동 국군묘지에서 호국영령 추념식이 많은 유족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이



- 1 개량된 1960년대 인천 주택의 부엌 모습. 마치 북한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1973년).
- 2 태극기가 게양된 도화동 국군묘지(1968년)
- 3 도화동 국군묘지에 안장되었던 전몰장병의 유해를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모습(1968년)
- 4 자유공원 숲을 방제하는 소방차(1967년)

곳에 묻힌 358위의 영령 무덤 앞에 여학생들이 머리 숙여 헌화를 할 때 1천546명의 유족과 시민들은 한결같이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을 맞아 이곳 운수업자 및 극장 측은 유족들에게 무임승차와 무료관람 봉사로 위로했고 향군경기도지부를 비롯한 시중 각 기업체에서는 광목 48필, 식방 500개, 타올 120개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도화동 국군묘지는 1968년 이곳에 묻힌 시신들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하면서 폐쇄되었다. 사진 2는 이장되기 전의 도화동 국군묘지의 모습이고 사진 3은 1968년 8월 17일 수습된 유골들이 헌병차의 호위 속에 동작동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여름 송충이의 공포가 스멀스멀 몰려온다. 나뭇잎이 무성한 이맘때쯤이면 송충이 ‘낙하’ 공포에 모두들 기겁을 한다.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노라면 송충이가 머리 위로 수없이 떨어지곤 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길바닥에는 ‘로드킬’ 당한 송충이들의 역겨운 모습 때문에 보행이 힘들 정도였다. 학교마다 인근 산을 하나씩 배정받고 송충이 잡이에 나섰다. 끈 달린 깡통과 나무젓가락은 필수 도구다.

집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기도 했다. 한두 시간만 지나도 깡통에는 송충이가 수북했다. 송충이는 깡통 채 구덩이에 던져지고 학생들은 불 속에서 지글거리는 송충이의 최후를 보고나서야 하산했다. 사진 4는 1967년 6월, 자유공원의 숲을 방제하는 모습이다. 화재 진압 대신 벌레를 죽이기 위해 소방차가 동원돼 나무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능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맘 흘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콘서트Ⅷ

〈여행스케치가 들려주는 상쾌한 산들바람〉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여행스케치가 관객과 더 가깝게 호흡하기 위해 커피콘서트를 찾아온다. 〈별이 진다네〉, 〈왓치 느낌이 좋아〉,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나?〉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통해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라이브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있는 여행스케치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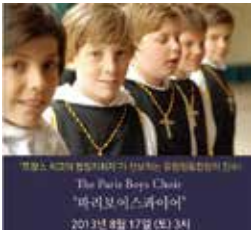
일시 : 8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파리보이스콰이어 내한공연

1956년 설립된 합창전문학교 파리보이스콰이어는 여느 장르의 합창곡보다 상당한 기본기와 예술성이 요구되는 클래식과 프랑스 정통 민요를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럽 최정상 합창단이다. 9세~15세로 구성된 35명의 변성기 전의 소년들과 16세~30세로 구성된 15명의 남성들로 팀을 이루어서 해외투어를 다닌다. 어린 소년부터 성인 남성까지 구성된 파리보이스 콰이어의 하모니는 장엄하고 웅대한 스케일과 감성을 자극하고 전달하는 섬세한 디테일까지 유럽정통 합창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실력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다.

일시 : 8월 17일(토) 오후 3시
장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티켓 : 6천원, 학생 무료
문의 : 엔티켓 760-3457



야외상설공연 〈황.금.토.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요~!”

8월 17일 인천시립합창단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시립합창단이 어려운 오페라가 아닌 이야기와 해설로 풀어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선보인다. 널리 알려진 오페라의 갈라 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8월 23일 클래식으로 듣는 7080
복고 바람이 완연한 가운데 추억과 낭만이 돋는 그때 그 노래를 클래식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7080시절 국내외 POP을 클래식으로 편곡한 작품과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는 여름밤을 설레게 한다.

8월 24일 인천시립무용단 〈Yellow Bus〉
관객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체험형 공연.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생기는 몇 개의 단편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8월 30일 新국악콘서트 달강달강
국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느낌의 국악 콘서트 ‘달강달강’이 무대에 오른다.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곡뿐만 아니라 새롭게 편곡된 곡들까지 아울러 국악의 흥겨움과 아름다움을 더했다.

8월 31일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판타지야〉
Fantasia(판타지야)는 프랑스어로 ‘시각적인 잔치’라는 뜻이다. 화려한 금관악기인 브라스 매력을 뽐내며,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연주자와 참여한 청중들 모두 함께 즐기는 잔치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일정 : 8월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오후 7시(금, 토요일)
장소 : 야외공연장 / 티켓 : 무료



Exhibition	<p>~8월 2일 문인화 회원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p> <p>~8월 7일 정전60년 특별기획 2013 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_525,600시간과의 인터뷰〉(백령도), 만남과 소통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p> <p>~8월 25일 오브제 제형전시〈가루야 가로야〉(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p> <p>~8월 22일 피카소의 절대미 - 고향으로부터의 방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p> <p>8월 6일~8월 13일 인천 사진집단 인(人) 사진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미추리 회원 사진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p> <p>8월 8일~8월 16일 2인색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p> <p>8월 9일~8월 15일 그림벗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p> <p>8월 14일~10월 6일 정전60년 특별기획 2013 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_525,600시간과의 인터뷰〉(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등)</p> <p>8월 16일~8월 22일 제7회 빛과 향기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p> <p>8월 20일~8월 30일 아트로드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p> <p>8월 20일~31일 변형문 서각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p> <p>8월 23일~8월 29일 낯선이들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p>
------------	--

SUN	MON	TUE	WEN	THU	FRI	SAT
08 CALENDAR PERFORMANCE	8.16 썸머페스티벌 인천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사랑방시네마 (독립영화 바랑스)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30분 / 오후 8시 무료 ☎032-505-5995 인형전시&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4 다양성 영화제 '어그 저 콧것'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오후 2시 무료 ☎032-850-6018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후 2시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5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6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7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8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오페라 사랑방의 Love is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032-899-1516~7	9 어린이 북 콘서트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032-760-1000 온오프무용단의 '파란 운동화'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032-505-5995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1 다양성 영화제 '우울해! 사랑모임'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오후 2시 무료 ☎032-850-6018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후 2시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2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3 해설이 있는 고전주의 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테너 김중훈 제자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테너 김중훈 010-8310-1877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페라 서곡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6시 30분 / 무료 ☎인문청소년오케스트라 032-760-3431 여름방학 특집 어린이 뮤지컬 '별거숭이 일곱남'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 1만원 ☎032-580-1155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4 커피콘서트Ⅷ 여행스케치가 들려주는 상쾌한 산들바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제5회 카이행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이도홀 오후 7시 / 1만원 ☎카이행버오케스트라 032-760-3431 여름방학 특집 어린이 뮤지컬 '별거숭이 일곱남'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 1만원 ☎032-580-1155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5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6 2013 썸머페스티벌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가족음악회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3 썸머페스티벌 성안당빌딩 리프스타의 갤러리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사랑방시네마 (독립영화 바랑스) '투 울드 합탈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무료 ☎032-505-5995 사랑방시네마 (독립영화 바랑스) '사움드 노브노이즈'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무료 ☎032-505-5995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17 해설이 있는 낭만주의 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3 썸머페스티벌 조용범의 파워클래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 오페라(아리아와 합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파리보이스콰이어 내한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3시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 극단 온오프무용단 '失樂園 실 낙원'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오후 5시 일반 1만 5천, 학생 1만원 ☎인천예총 032-866-2019
18 2013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근현대 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3 썸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다양성 영화제 '투 울드 합탈 키드'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오후 2시 / 무료 ☎032-850-6018	19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0시 30분 1만원(전시관람은 무료) ☎032-453-5710 인형전시 & 제형프로그램 작가 이동현의 "하하호호!! 린다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오전 1					

한여름에 즐기는 클래식 여행

청소년을 위한 썸머 페스티벌

뜨거운 태양, 빛나는 푸른 파도 대신 넘실거리는 음표의 유혹에 빠져보자.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썸머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들이나 클래식 입문자들이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했다.

글 김윤경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임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해설이 있는 고전주의 음악

13일(화) 오후 5시 / 대공연장 / 전석 1만원

서울필하모닉의 연주로 진행된다. 지난해 지휘 부문 한국오페라대상을 수상한 김봉미 지휘자가 연주 중간 재미난 작곡가들의 이야기와 곡 해설을 덧붙인다.

임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15일(목) 오후 3시 / 소공연장 / 전석 2만원

클래식 음악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독주회. EMI 레이블로 베토벤 전곡을 데뷔 앨범으로 발매하면서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에 기록했다.

성악양상블 ‘라페스타’의 갈라콘서트

16일(금) 오후 3시 소공연장 / 전석 1만원

무게감 있는 기존의 성악을 좀더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가곡, 오페라, 뮤지컬 등 친숙한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16일(금) 오후 7시30분 대공연장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향만의 색깔로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펼친다.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17일(토) 오후 3시 소공연장 / 전석 1만원

대중에게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조윤범이 사진과 악보는 물론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자연도감에 이르기까지 흥미 있는 자료들을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활용하여 소개한다.

해설이 있는 낭만주의 음악

17일(토) 오후 5시 대공연장 / 전석 1만원

개성과 자유로운 태도를 중시하며 시나 회화 등 음악 외적인 분야와 결합하는 경향이 짙었던 ‘낭만주의’의 강한 색채가 묻어나는 시간.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릿시니 등의 음악가를 만날 수 있다.

해설이 있는 근현대 음악

18일(일) 오후 3시 대공연장 / 전석 1만원

인천원도오케스트라가 ‘장미의 축제’ 서곡을 시작으로 리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등 관악기의 환상적인 울림을 선보인다.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8일(일) 오후 5시 소공연장 / 전석 1만원

인천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작은 오페라’. 보통 3시간 넘어가는 길이만으로도 오페라를 부담스러워하는 관객들은 부담을 덜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명작,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Stage on Screen

8월 말부터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초까지 저녁나절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으로 나들이 가는 것은 어떨까? 달빛이 머무르는 너른 광장에 친구끼리, 연인끼리 또는 가족끼리 간단한 음료를 준비해 와서 대형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로 최고의 영상물을 즐기며 일상의 여유로움을 만끽해보자.



‘영상으로 즐기는 무대예술’이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CGV, 메가박스, 삼성 베크홀 등 국내 대표적인 영화관에서는 유명 뮤지컬, 발레작품의 공연실황 상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인 링컨센터도 매년 하절기 동안 일몰 후 야외광장을 활용하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실황을 상영하며, 부담스런 티켓가격 때문에 공연관람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해외 유명 오페라 및 뮤지컬 총 8개 작품을 엄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회관 야외광장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뮤지컬은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콤비작의 〈오클라호마〉부터 12년간 브로드웨이 장기상연작인 조나단 라슨의 〈렌트〉 그리고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총 4편이 상영된다. 특히 Big4 뮤지컬 중 하나로 꼽히는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은 모두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구성했다.



또 오페라는 비제의 〈카르멘〉, 푸치니의 〈라 보엠〉,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총 4편이 준비되어 있다. 〈카르멘〉 〈라 보엠〉, 〈마술피리〉는 130년 전통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공연실황이며, 〈라 트라비아타〉는 2005년 화제를 모았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경우 매해 시즌별로 공연실황이 고화질 HD급 영상으로 제작되어 나오기 때문에 화질이 매우 선명할 뿐 아니라, 막과 막 사이 무대전환이 되는 생생한 무대 뒷모습 또는 출연진과의 즉석 인터뷰 영상이 담겨 있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상영 일정 |

장르	일정	프로그램
뮤지컬	8월 28일(수)	〈오페라의 유령〉 : 25주년 기념 로열 알버트 홀 공연실황
	8월 29일(목)	〈렌트〉 : 2008 브로드웨이 공연실황
	8월 30일(금)	〈오클라호마〉 : 1998 영국 올리비에극장 공연실황
	8월 31일(토)	〈레미제라블〉 : 2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실황
오페라	9월 4일(수)	〈카르멘〉 : 2010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실황
	9월 5일(목)	〈라 보엠〉 : 2008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실황
	9월 6일(금)	〈마술피리〉 : 2006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실황
	9월 7일(토)	〈라 트라비아타〉 : 2005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

일시 : 8월 28일(수)~9월 7일(토) 수·목 오후 7시 30분, 금·토 오후 8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 장르 : 오페라 및 뮤지컬

티켓 : 무료 문의 : 공연기획팀 ☎420-2731

※ 우천시 또는 기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

우리가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인천시를 '2015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 4월 23일)을 제정하여 독서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제도를 통해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책을 통해 창조적, 산업적, 정책적, 국내외적 측면 등 다양한 면모를 이끌어 내고자 매년 세계 책의 수도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가 선정됐다.

우리는 세계 책의 수도에 지정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에 따른 공공 및 작은도서관 건립, E-book 전자도서관 시스템 확충을 통한 독서 장려 운동을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아시아 문학상'을 제정하고, 국제 아동도서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북 콘서트', '시 낭송회', '책으로 치유하는 힐링운동', '지역 도서관에서의 문학 작가 초청', 'SNS를 통한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 도서 기증 및 책 추천 릴레이운동도 함께 벌인다. 북한 문학가와의 만남, 국제서점협회 세미나, 세계 대학생 도서 커뮤니티 초청 행사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4002



4번째 국공립 장애아 어린이집 개원

우리시에서 네 번째 국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지난달 19일 개원했다. 남동구 구월동에 문을 연 '단비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권익신장과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비 10억8천700만원, 구비 2억8천900만원 등 총 13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11월 착공, 올해 5월 준공했다. 연면적 451㎡에 지상 3층 규모다.

이로써 우리시는 국공립 4곳, 법인 1곳 등 모두 5곳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운영하게 됐다. 단비어린이집의 위탁자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참빛문화예술학교가 선정됐으며, 보육교직원 15명이 장애아동 32명을 돌보게 된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440-2897

친환경 차부품 개발 'LG전자 인천캠퍼스' 오픈

서구 경서동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핵심 기지인 'LG전자 인천캠퍼스'가 들어섰다.

지난달 10일 오전에 열린 'LG전자 인천캠퍼스 준공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영길 시장, 전년성 인천 서구청장, 이학재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국내외 자동차업계 관계자, 구본무 LG 회장을 비롯한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등 LG의 최고경영진이 함께 참석했다.

연면적 10만4천621㎡규모로, 자동차부품 연구와 설계, 시험 등 R&D 핵심 인력 약 800여 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LG전자 인천캠퍼스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총 3천1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완공으로 향후 LG전자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 자동차부품 사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92



청라~강서BRT 7월 11일 부분 개통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인천 청라지구에 간선급행버스(BRT)가 부분 개통됐다.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공사가 청라지구 진입도로를 제외하고 부분 완공돼 지난달 11일 오후 5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개통된 노선은 청라지구에서 부천시 오정구를 거쳐 서울 화곡역까지 19.8km이며, 총 사업비 415억원이 투입돼 착공 2년 8개월만에 부분 완공됐다.

운행시간은 상행선(청라→가양역)은 05:30부터 23:05까지이고 하행선(가양역→청라)은 06:00부터 24:00까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그 외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5030



2014 인천AG 입장권 10월부터 판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내년 9월 19일~10월 4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을 오는 10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장권 1차 판매시기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판매시기는 내년 4~8월이다.

조직위는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판매 후원 여행사를 오는 9월에 선정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입장권을 활용해 관광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1월 국내 판매 후원사(대행사)로 SK플래닛을 선정했다.

문의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664

첨단로봇으로 2014 인천장애인AG 홍보

청소년 로봇동아리 '로보티카'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단으로 위촉돼 첨단 로봇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5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 13명으로 구성된 로봇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로봇동아리인 이들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2족 로봇)과 메탈 댄스로봇, 서바이벌 로봇 등을 이용해 낯선 장애인 경기를 소개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5372



유망중소기업 31개 선정

우리시는 지난달 '인천시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는 87개 업체를 신청 받아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평가와 '유망중소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지앤지테크놀로지 등 31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선정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지원하고, 해외 인증 및 규격획득 우선지원, 국내·외 전시회 등 판매망 지원 등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999~2012년까지 356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자금융자, 전시회 참가지원 등 4천923억원을 지원했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4278

2014 인천장애인AG 엠블렘 세계 디자인상 수상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대회 엠블렘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위너(Winne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43개국 6천80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국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들을 선정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은 성화를 형상화해 스포츠 대회가 주는 감동과 열정의 가치를 강조했고, 다양한 색상의 성화 불꽃에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하나된 아시아의 힘을 표현했다. 한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42개국 6천 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한 아시아경기대회 직후인 내년 10월 18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문의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5252



'연희공원'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

서구 연희공원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연희공원이 환경부에서 공모한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연마당' 사업지로 선정된 연희공원 인근 농경지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해 먹이터, 휴식터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유희 공간으로 방치돼 왔다. 그러나 이번 '자연마당' 사업지로 선정돼 연희공원이 생태휴식공간으로 복원된다.

시는 연희공원 5만㎡부지에 국비 32억원을 투입, 오는 2015년까지 시민농사체험, 철새 먹이주기 등 생태휴식공간으로 복원해 도시생태 복원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농사체험, 철새 먹이주기, 철새 탐방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532



인천시 국제인증심사 3년 연속 통과

시민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시의 인천데이터센터가 국제인증인 ISO20000 인증심사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년 연속 통과했다. 시는 지난 2011년 8월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을 통합해 중북투자 해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인천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ISO20000 인증은 IT서비스 운영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수준과 장애처리, 변경관리 등 IT 운영관리체계가 국제표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국제 인증이다. 시는 인천데이터센터가 IT 표준 운영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55



바가지요금 없는 인천으로 오세요

우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함께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와 지역상인, 행정 간 협력을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의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따라 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요금인상 및 자릿세 징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 해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업소별 신고요금표 배포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 시 생활경제과 ☎440-4203



9월까지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우리가 오는 9월까지 아파트관리·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 및 분쟁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2013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용역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해 비리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를 하거나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전체 주택의 53%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의 질을 높이고, 그동안 사적 차지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440-4734

인천의료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인천의료원이 '201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인천의료원은 심평원이 전국 688개 혈액투석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91.4점을 얻었으며, 서울, 부산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과 함께 1등급을 수상했다. 인력·시설·장비 등 구조적 측면은 물론 혈액투석 적절도·혈관관리·빈혈관리 등 진료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의료원 측은 밝혔다. 또 최근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결과 환경성 등에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됐다. 문의 : 인천의료원 ☎580-6552

내년 상반기, 송도에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준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일본 파이오락스의 제조시설과 R&D시설을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 중인 이종철 청장이 PIOLAX사 본사를 방문,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지식기반제조용지 5천413만3㎡ 부지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R&D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PIOLAX는 이날 투자계약에 따라 국내 삼영무역 등과 공동투자해 설립한 외투법인 파이오락스(주)사에 미화 1천만 달러를 투입해 연면적 7천600㎡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R&D 시설을 내년 상반기내 건립 완료할 계획이다. 파이오락스(주)는 건립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연료계 밸브 및 자동차 내장 개폐장치 등 안전 편의 장치 위주의 고기능성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73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

우리는 정비사업에 대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시는 1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 구에 통보했다. 각 구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춰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주거환경정책관 ☎440-3445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자연장 조성

인천가족공원에 3천212기를 안치할 수 있는 친환경 자연장이 조성됐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부지 2천475㎡에 8천1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자연장은 각종 관목류, 야생화, 경관석과 정자 등이 설치된 정원식 잔디장으로 꾸며져 있다. 공단은 1단계 잔디장(1천702기)의 안치가 완료되면 식생류가 정착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2단계 잔디장에 본격 안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1천441기를 안치할 수 있는 수목장도 시의 원가조정 등이 마무리되면 개원할 예정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 400기가 넘는 안치가 진행 중인 1단계 잔디장이 유족의 선호도가 높아 이번에는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잔디장 조성을 추진했다"며, "조성공사를 공단 자체 인력으로 완공해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가족공원사업단 ☎510-1933



인천의 풍경을 선물하세요~!

선물로 받은 사진엽서... 왠지 엽서 속에 담긴 근사한 풍경까지 덩달아 모두 선물로 받은 느낌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선뜻 관광엽서를 구입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인천의 풍경을 한아름 선물해보면 어떨까? '굿모닝인천', '인천나우', '연수한마당' 등 인천에 관련된 사진작업을 오랫동안 해 온 홍승훈 작가가 최근 인천의 모습을 꼼꼼히 담은 '사진 엽서 카드'를 선보였다. 엽서는 인천관광 사진엽서전 동상작품이기도 하다. '내일이 더 설레는 첨단미래도시, 송도국제도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도', '이국의 정취 가득한 인천 차이나타운', '파도와 바람, 물새 벗삼은 인천의 섬', '아름다운 자연과 거닐다, 인천의 풍경' 등 5종류 60장의 사진이 담긴 엽서는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 또는 인천의 모습을 궁금해 하는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다. 사진만으로도 인천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엽서는 송도 컨벤시아 1층 '두리아트'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한 종류당 1만원.



이성만 제 6대의회 후반기의회 의장

‘사람이 모이는 인천’ 희망과 비전 있다



인천 토박이인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52)은 월미공원 걷기를 좋아한다. 바다도 있고, 항구도 보이고, 산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이 다양성을 갖춘 인천과 닮아서다. 이 의장은 이곳에서 월미은하레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 의장은 제6대의회 후반기의회 수장을 맡아 지난 1년간 인천발전을 위해 구두가 다 닳도록 뛰었다. 후반기 의회 이끌고자 의정발전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에 근거한 생활정치를 하면서 재정난 극복, 원도심 개발 등 커다란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이 의장은 인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30년 전 인구 5천명에서 시작해 지금 300만에 이르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것을 보면 사람이 찾아오고 계속 발전하는 도시가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발전 가능성을 믿고 계속 응원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 등 의정활동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요?

■ 정책의회를 강화하고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화했습니다. 2006년 이후 활동이 없었던 의원 연구단체를 장려해 현재 협동조합 연구모임, 시민생활 밀착 사업연구포럼, 녹색거버넌스 연구모임, 사회책임조달 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고자 현장방문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지난 1년간 100여 개소 민원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 등 법적 제도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을 책임감 있게 견제와 감시를 전개했습니다.

■ 시민과 직접 만나는 의정활동을 대폭 확대했는데 그 취지와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다면?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역의 독지가가 의회측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물품 기증 의사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주선으로 사랑의 마스크 200만개를 전달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물품을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 제 6대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요?

■ 의원들의 정책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회 입법 지원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의정연구과제 협약으로 고령화사회 연구소 설립, 주차난 해소, 내항 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하대 및 인천대와는 지방자치발전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인하대와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현안 연구’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님께서서는 공무원도 하셨는데 행정경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 92년도 행시에 합격한 후 인천시에서 7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인천시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인천의 비전과 미래를 그려내는데 근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경험이 의정활동에 일석이조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은 1년간의 의정활동은 어느 부분에 주력하실 생각인지,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공사판으로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지상공사를 마무리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약속했던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병 의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 209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이재병(건설교통, 부평2)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재상(산업, 강화2)·신동수(문화복지, 남동3) 의원을 각각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결위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다음해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병 의원은 “지금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신도심·원도심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어렵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간의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료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진아파트 주민들 김병철 의원에 감사패 전달

인천판 피사의 아파트로 알려진 인천 남구 송의동 우진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6월 21일 김병철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병철 의원은 남구 송의동 우진아파트가 기울어져 주민들의 어지럼증 호소와 문이 뒤틀려 열고 닫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해당 조례 개정과 시비 2억 1천만원 지원 등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입법 활동을 통하여 지난 5월 8일 우진아파트가 기울어진 지 10년 만에 복원공사를 통하여 바로 세워지는데 기여를 하였다.

배상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제6대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통해 배상만 교육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수영 의원, 홍성욱 의원을 각각 제1부위원장과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인광역시의회 운영에관한조례에의한윤리강령및윤리실천 규범 등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의원내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소외계층에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인천광역시의회는 IBK기업은행의 후원으로 무료급식차량을 기증 받아 지난 6월 27일 자유공원 광장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전달식’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전달식 후에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한마음봉사단 및 내빈들이 참석하여 배식 및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하는 등 오블리주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토털 자원봉사 알림의 날을 함께 운영하여 체험부스, 홍보부스, 문화공연 등 참여자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IBK기업은행이 급식차량과 운영비를 후원하고, 무료급식차량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3.5톤 트럭 내부에 취사시설과 냉장, 급수설비를 설치해 1회 최대 300인분의 배식이 가능하도록 특수 개조한 차량으로 각종 편의기능이 대폭 보강된 최신형 급식차량이다.



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의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사회적기업, 교육청 등과 간담회 개최, 조례안 협의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정 조례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Info+box

울목도서관 8월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은 여름의 정점인 8월을 맞아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 더위 에 지쳐가는 여름,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화행사로 더위를 날려보자.

야간 문화프로그램

제목 : 비움+채움

기간 : 8월 22(목) 19:00~21:00

장소 :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주요내용 : 땅공집 건축가 이현욱님을 초청하여 주(住)를 화두로 행복 한주거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 마련

문의 : 770-3802

도서관, 박물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제목 : 문학, 나를 돌아보는 창(窓)

기간 : 5월~11월, 매주(금) 10:00~12:00

장소 :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주요내용 : 수필가 이성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여행, 다락 방(多樂房) 운영, 근대문학작품을 읽고 관련 주제를 정하여 글쓰기 수 업 진행

문의 : 770-3812

다문화서비스지원 사업

제목 : 나도 한국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작하는 ‘한국생활백서’

기간 : 7월~12월, 매주(일) 15:00~17:00

장소 :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멘토단 구성,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한국에서의 생활 방법 배우기 등

대상 : 외국인 근로자 20명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10

어린이 대상 상시 운영 프로그램

제목 : 울목도서관 8월 상시운영 어린이 프로그램

기간 : 8월 1일(목)~31일(토)

장소 :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실

주요내용 : 영어 교육 콘텐츠 상영, 이야기 보따리 술술, 가족과 함께 레디~액션!, 독서왕! 울목 밤불이, 독서통장 발급, 올레줄레 도서관 여행기, 테마전시

문의 : 770-3808, 3811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문의 : 440-2422

치석제거, 부분틀니 의료보험 급여 확대

건강보험공단 계약지사는 지난달 1일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치석제거

• 만 20세 이상 후속처지 없는 치석제거 대상자

• 급여횟수 : 연간 1회(초과 시 비급여)

※ 연간급여 기준은 금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 치과에서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시술

부분 틀니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남은 치아를 활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틀니종류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본인부담률 :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무상관리기간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 주의 :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틀니 대상으로 등록

인천명소와 지하철역사에 스탬프앨리 진행

인천교통공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명소와 지하철역사를 엮은 스탬 프앨리 행사를 연다. 스탬프앨리는 유치원,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다양한 문화재와 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 7월 20일~9월 1일

참가방법 : ① 지정역(8개역)에서 무료로 배부(1천권)하는 스탬프앨리 책자 수령 ② 행사 지정역 역세권 주변 명소 방문 후 인증샷 찍고 스탬 프 날인 해당역 서비스센터에서 스탬핑(7월 20일~9월 1일) ③ 센트럴 파크역에서 완주 접수 후 기념품 수령(8월 5일~9월 6일)

지정역사 : 센트럴파크, 테크노파크, 캠퍼스타운, 동막, 원인재, 문학경 기장, 예술회관, 경인교대입구역

기타사항 :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역사 체험(봉사)활동 시행 후 봉사활동 인증서(2시간) 발급(체험활동인원 과다 시 인근역 배치), 지정역사 관광 명소 8곳을 방문 후 인증사진을 개인 카페(블로그)에 올리고 공사 홍보 블로그에 해당주소 등재.

문의 : 451-2165

2기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딜러 양성

우리시는 '2기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딜러'를 양성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신청기간 : 7월 29일~8월 28일

교육기간 : 9월 2일~10월 2일(5주, 120시간)

교육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입학자격 : 인천 거주하는 실업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정원 : 40명

신청방법 :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기업협력처 방문접수

Info+box

든든학자금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은 미래의 동량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용 바란다.

※ 든든학자금이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 2013년도엔 연 2.9%까지 인하. 저금리로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기에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

※ '1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 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7.10~9.24)하면 되고, 생활비대출 신청은 11월 11일까지 가능

문의 02-2100-6271

폐허 속에 찾아낸 오브제

사진공간 배다리는 8월의 전시로 ‘폐허 속에서 찾아낸 오브제’전을 연다. 인천문화재단에서 기금을 받아 전시하는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만 해도 총 40여 명으로 전문사진인 10여 명을 포함하여 아마추어 사진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사진전이다.

‘폐허 속에서 발견된 오브제’전

일시 : 8월 16일~8월 28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대안미술공간 스페이스 빔, 한점 갤러리, 띠 갤러리, 아벨전시관, 동인천 배다리 한책방 거리 등

관람시간 : 10시~18시

문의 : 010-5400-0897

OBS 휴먼다큐 〈아버지와 딸〉, 매주 목요일 오후 11:05

OBS 휴먼다큐〈아버지와 딸〉은 친근한 정을 나누며 드라마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반인과 화제의 인물·사회 각계각층의 부녀가 출연할 예정이며, 등장인물의 1인칭 시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는 ‘교차 내레이션’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채널안내 670-5500 , 뉴스제보 670-5555

OBS채널 안내

지상파

8-1번

스카이라이프

31번

IPTV

KT 31번

SKB 20번

LGU+ 26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www.obs.co.kr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8월 도서관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숲 체험 행사 "애들아! 숲에서 놀자"	8월 3일(토) 10:00	남동문화공원	초등 3~4	440-6662~4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8월 10일(토) 14:0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62~4
김명자가작전	8월 7일(수) ~8월 25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33
원화전시회 『아기오리 12마리는 너무 많아』	8월 5일(월) ~8월 25일(일)	로비(1층)	전체	440-6662~4
하반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8월 19일(월) ~마감시	평생학습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체	440-6662~4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1층) ※홈페이지 참조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역(지하2층) 미추홀도서관(1층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를 참고하세요.

가을학기 문화강좌 참여하세요

미추홀 문화회관에서는 가을학기에도 부담 없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무료특별기획강좌’를 많이 개설했다. 또 알아두면 유용한 ‘전문인 무료특강’ 과 사교육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신설강좌가 많이 개설했다.

강좌기간 : 9월 2일~11월 23일 (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 7월 29일~9월 7일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 : 765-0220, 0250, 홈페이지 mchart.co.kr

Info+box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는 국비지원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대하는 이번 교육에 인천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교육기간 : 8월 20(화)~10월 28(월) ※예정

교육일수 : 총 54일(월~토, 주 6일)

교육시간 : 총 420시간(09:00~18:00, 1일 8시간)

※ 이론교육 210시간, 현장실습 210시간

교육장소 : 이론 –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3층 강의실(구월동) 현장실습 – 재능대학교

교육내용 : 표면처리 실험실습, 품질경영 시스템, 녹색경영 시스템, 교양교육

모집기간 : 7월 15일(월)~8월 19일(월)

※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에 모집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 창업 및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인천시민

• 우선선발대상 : 베이비부머(1955년~1968년생)

•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 이하의 사업자 및 폐업신고자 모두 가능)

모집인원 : 30명

지원방법 : 방문접수, 팩스(429-6621)

이메일(tong7tong2@daum.net)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반명함 사진1장,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교 육 비 : 전액무료, 매월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교육참가일 기준 1일 1만원(교통비+식비) 지급

선발방법 : 채용예정기업 면접 후 합격인원을 교육생으로 선발 (수료후 맞춤 취업)

문의 : 429-6622

8월 1일부터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우리는 8월 1일부터 각종 증명수수료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카드 납부서비스를 군·구를 포함하여 전면 시행한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시청 내 세정과, 시민봉사과, 교통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등 13개 기관과 인천광역시 산하 군구 민원실, 세무부서, 교통부서 등 160여 개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부서 및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대상 : 시, 군·구 각종 증명 수수료, 교통과태료 및 세외 수입

인터넷납부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방문납부 : 시, 군구 세무부서, 교통부서 등

대상카드 : 모든 카드

문의 : 440-2572, 군구 세무과

하우스푸어 위한 대출 지원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하우스푸어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즉시 목돈을 인출하여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내집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부부기준 1주택 보유, 두분이상 모두 50세 이상

대상주택 : 담보대출이 있는 6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포함)

목돈지급한도 :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지급(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50세 사입 시 85백만원, 55세 가입시 101백만원 지급

적격전환대출

기존 대출의 담보 평가액은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의 적격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대출 요건 : 전체 대출기간의 1/2이 지났거나 대출일로부터 3년 이 경과된 대출

대출한도 : 최대 2억원(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신청 및 문의 : 1688-8114

FTA 무역 인력 채용희망기업 모집안내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지식을 갖춘 FTA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TA 무역 전문 인력 POOL

대상 : 인천상공회의소 FTA 무역 전문인력 양성 과정 수료생 100명

전문인력 특이사항 : 직접면접을 통해 선발한 품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기존 취업사이트의 인력풀과는 차별성 있는 인재풀 구축

교육내용 : 무역실무, 수출입통관실무, FTA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요령, 비즈니스 영어회화, 무역영어 등

근무가능분야 : 일반무역사무, 원산지증명서 관리, 구매업무 등

취업가능지역 : 인천, 서울, 경기도 일원

FTA 무역 인력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참여 안내

일자 : 9월 3일(화)

장소 : 접수기업에 한하여 개별공지

신청방법 : 구인요청서 팩스 및 메일 제출 → 면접대상자선정 → 만남의 날 면접 → 채용결정

문의 : 810-2852, 2860

2014 인천AG 신설경기장 명칭 공모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신설되는 경기장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경기장의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대상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 3개 경기장 명칭

공모주제 : 경기장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AG개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 표현

공모기간 : 8월 6일(화)까지, 16일간

응모자격 : 자격제한 없음

접수기간 : 8월 6일까지(화)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상분야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3개 경기장 명칭

시상인원 : 최우수(당선작) 3명, 우수 3명

시상금 : 최우수 각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발표 : 9월 2일(월) 예정

문의 : 440-4075

인천대공원 여름방학 특집 체험행사

인천대공원 환경미래관 환경실험실은 여름방학 특집기획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과학과 환경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

일시 : 8월 13일~15일 (오후 14:00~16:00)

장소 : 인천대공원 환경미래관 환경실험실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가족단위)

모집기간 : 7월 25일~8월 12일(행사전일)까지

접수방법 : 유선전화 및 방문(선착순)

다양한 무척추 동물이야기

일시 : 7월 26일(금)~8월 16일(금)

장소 : 인천대공원 환경미래관

주제 : 하천생태계와 무척추동물

문의 : 440-5892~4

전문베이비시터에 도전하세요

인천여성취업센터는 전문베이비시터, 전문베이비에듀시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전문베이비시터

산모 & 신생아관리 영유아 마사지, 영유아건강·안전·영양관리 등

전문베이비에듀시터

영유아 발달단계·영유아 마사지, 놀이학습지도(구연동화, 미술놀이, 전통놀이지도 등), 방과후학습지도·독서지도

문의 :260-3619

지역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인천의 지역특성을 지니고, 잠재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기간 : 8월 30일까지(금)

접수기간 : 8월 26(월)~30일(금)

응모자격 : 인천시민 누구나(민간 및 비영리 단체 포함)

공모내용 : 인천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도서 및 농촌 복합형 사업 인천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사업 정부보조금지원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 지역사회서비스 가능사업

제출양식 : (cafe.naver.com.iccss.cafe)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방법 : E-mail 접수 / cm82kg@idi.re.kr

우편 접수 / (442-835)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별관 2층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상내역 : 우수상 2인(상금 30만원), 장려상 2인(상금 20만원)

시상식 : 9월 중 예정

문의 : 440-2978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있어요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관심있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노노케어)	노인모니터링사업
활동인원 : 105명	활동인원 : 8명
근무시간 : 월 26시간	근무시간 : 월 20시간
보수 : 월 20만원	보수 : 월 20만원
활동지역 : 인천시 관내 전 지역	활동지역 : 인천시 관내 전 지역

문의 : 886-1855

송도세계문화축제 26일부터 6일간 열려

제3회 송도세계문화축제가 8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포스코건설 사옥 뒤 특설행사장(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 1번 출구)에서 열린다. 경인방송 FM 90.7MHz, OBS 경인TV, 송도세계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70년대에서 90년대를 관통하는 우리가요의 명곡들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송도축제 콘서트 무대에는 홍경민, 옥순80, 건아들, 임희숙, 박상철, 변진섭, 김완선, 해바라기, 헬로우비너스 등 300인 이상의 뮤지션이 참여한다.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의 유명 맥주 브랜드와 세계 각국 음식 등 100여 종 이상의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 830-0204

Book



일심일언

이나모리 가즈오 | 한국경제신문사 | 2013

세계적인 기업가이며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저자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오며, 인생과 일에서 얻은 지혜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그의 인생으로 증명된 현실감 가득한 성공 노하우를 제시한다.



아이의 자기조절력

이시형 | 지식채널 | 2013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복잡한 인간 관계의 원리 및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사례를 통해, '왜' 자신의 주장이 옳은지 알려준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내용으로 인간관계에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응원한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무라카미 하루키 | 민음사 | 2013

철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가 잃어버린 과거를 찾기 위해 떠나는 순례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개인 간의 거리, 과거와 현재의 관계,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담았다. 한 사람이 삶에서 겪은 상실을 돌아보는 여정, 고통스럽고 지난하지만 한편으로 그림고 소중한 그 시간을 다자키 쓰쿠루와 함께하며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갈 희망을 얻게 된다.



시간에게 시간주기

안길수 | M&K | 2013

신문기자로 11년간 취재 현장에서 활동하다 창업의 길을 선택한 저자가 직장생활 10년차 휴가여행을 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개인적으로 체득한 여러 단상들과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남자로서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희정	공결	EBS 최고의 교사 '철학 권하는 선생님'과 함께 읽는 고전의 세계
2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태형	쌤앤파커스	이 땅의 스승 17명이 말하는 삶의 정수
3	결혼은 현실이다	마크 드리스콜, 그레이스 드리스콜	두란노	진짜 부부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진실
4	일심일언	이나모리 가즈오	한국경제신문사	일과 삶의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얻은 지혜의 정수!
5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프트뱅크 신규채용 라이브 편찬위원회	마리북스	손정의의 자기가 원하는 인생 특강
6	애니멀 티칭	돈 바우언 브런	머스트비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다
7	아이의 자기조절력	이시형	지식채널	내 아이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는 자기조절력의 발달을 위한 지침을 전한다!
8	피아노를 듣는 시간	알프레트 브렌델	한스미디어	현존하는 최고의 연주자 알프레트 브렌델이 들려주는 음악에 대한 단상들!
9	영단어 암기에도 공식이 있다	James Kim	삼영서관	어원 구성원리로 배우는 영단어 학습법
10	시간에게 시간주기	안길수	M&K	내 삶의 터닝포인트를 찾아 떠나다!
11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무라카미 하루키가 3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
12	퀵 엘리자베스	샬리 베달 스미스	알에이치코리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겸손의 리더십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소설가 조혁신



1968년 인천 출생
인하대 경제학과 졸업
2000년 계간 '작가들'로 데뷔

주요저서

소설집 「뒤집기 한판」(2007), 「삼류가 간다」(2010)

Incheon Life Story

인천 사는 이야기



인천대공원의 아름다운 사람

인천시민의 휴식처인 인천대공원. 고마운 환경지킴이 아저씨가 계시기에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문중주 남동구 문화서로



물의 나라 공주님

동춘동 부수지 놀이터에서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우리 공주님입니다.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사랑스럽습니다.
김은영 남동구 호구포로



2014 인천AG 성공개최를 위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마스코트 '바라매, 추므로, 비추온'와 함께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길 기원합니다.
임윤구 남동구 독점로



아라뱃길 네 바퀴로 썽썽~

아라뱃길을 따라 멋진 자전거도로와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나무가 더 푸르게 자라고 좀더 개발되면 제대로 멋진 풍경을 보여줄 겁니다.
이경수 계양구 동양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여기가 어디?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여객선을 타려면 이곳으로
(굿모닝인천 7월호에 소개했습니다.)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 답동성당

윤현미 충남 서산시 / 김인강 경기도 부천시
박동주 부평구 경원로 / 김민진 서울시 관악구



알아, 뱃길인지

그런데 배보다 자전거가 많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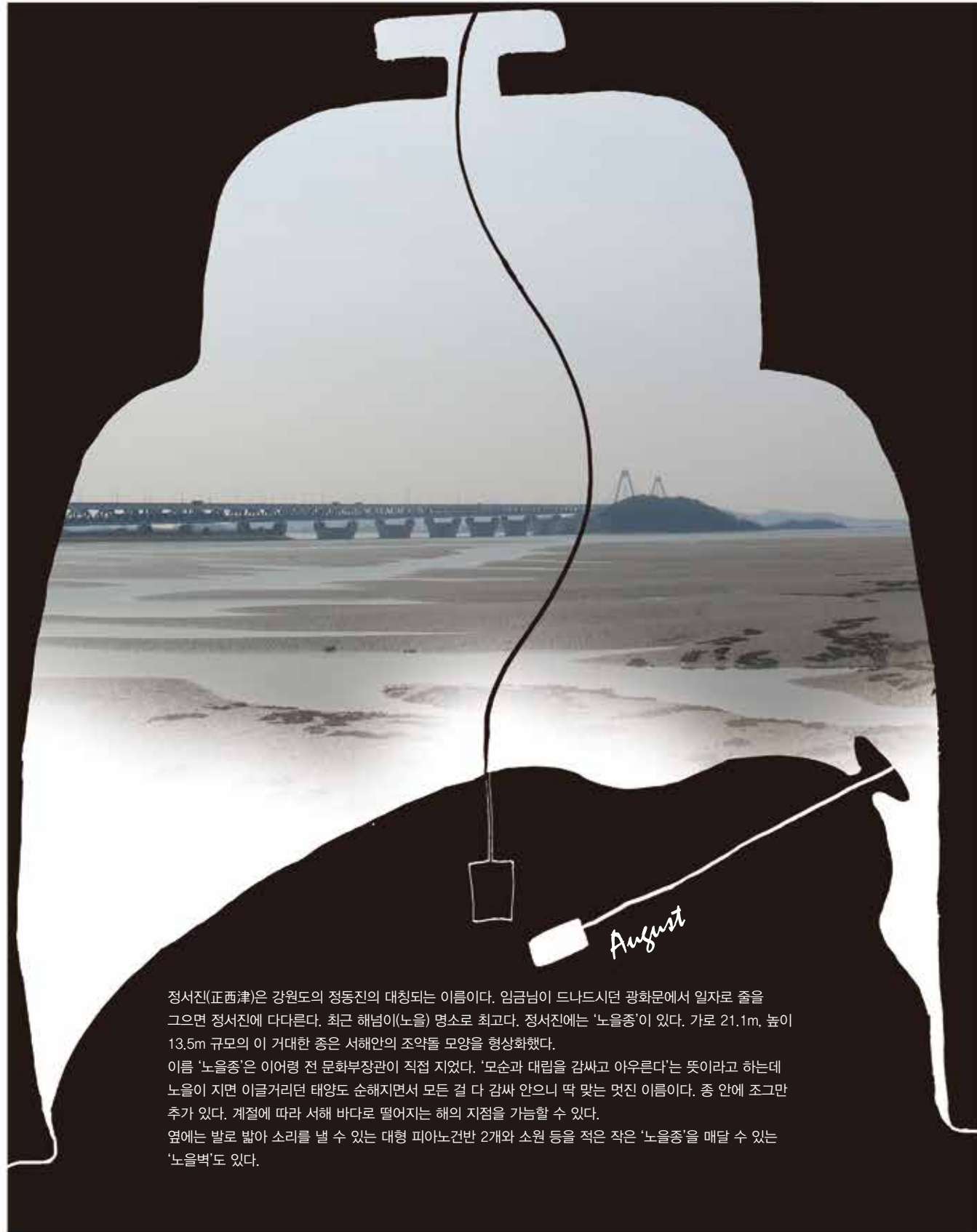
무더위 절정, 8월. 태양이 이글거린다. 바다, 강, 계곡 등 물이 그림다. 우리 인천에 몇 년 전 새로운 물가가 생겼다. 바다도 만나고 강도 만날 수 있는 아라뱃길.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시간 빼지 않아도 훌쩍 다녀올 수 있는 경인아라뱃길 수변 공간을 소나기처럼 천방지축인 인천고양이 도도가 더운 여름을 식혀 줄 아라뱃길로 안내한다.

그림 · 글 ·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인간의 힘, 참 대단하다. 땅을 파서 거대한 물길을 만들었다.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의 물길, 그 거대한 물길은 바다와 강을 이어주었고 인천과 서울도 만나게 했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서해의 짬물과 한강의 민물이 섞인다.

그런데 이 물길을 1천년 전인 고려시대에 만들 생각을 했더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지금이야 굴삭기, 트럭, 폭약 등 중장비를 동원해 뚫는다지만 고려 때는 순전히 맨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발상이 대단하다. 고려 고종때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첫 공사가 시도됐으나 기술부족으로 실패하고 만다. 역시 팔뚝만으로는 안되는 일도 많다. 일제강점기 때도 인공수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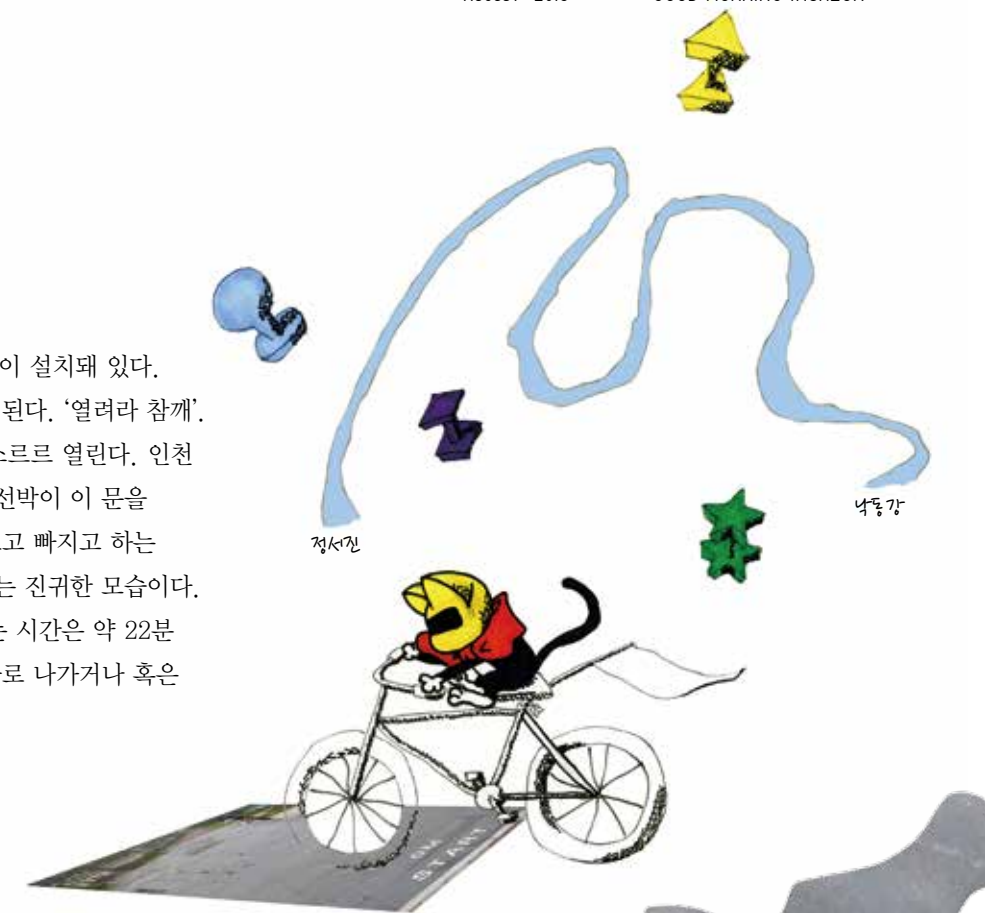




정서진(正西津)은 강원도의 정동진의 대칭되는 이름이다. 임금님이 드나드시던 광화문에서 일자로 줄을 그으면 정서진에 다다른다. 최근 해넘이(노을) 명소로 최고다. 정서진에는 '노을중'이 있다. 가로 21.1m, 높이 13.5m 규모의 이 거대한 중은 서해안의 조약돌 모양을 형상화했다. 이름 '노을중'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직접 지었다. '모순과 대립을 감싸고 아우른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노을이 지면 이글거리던 태양도 순해지면서 모든 걸 다 감싸 안으니 딱 맞는 멋진 이름이다. 중 안에 조그만 추가 있다. 계절에 따라 서해 바다로 떨어지는 해의 지점을 가늠할 수 있다. 옆에는 발로 밟아 소리를 낼 수 있는 대형 피아노건반 2개와 소원 등을 적은 작은 '노을중'을 매달 수 있는 '노을벽'도 있다.

경인아라뱃길 주요 시설 중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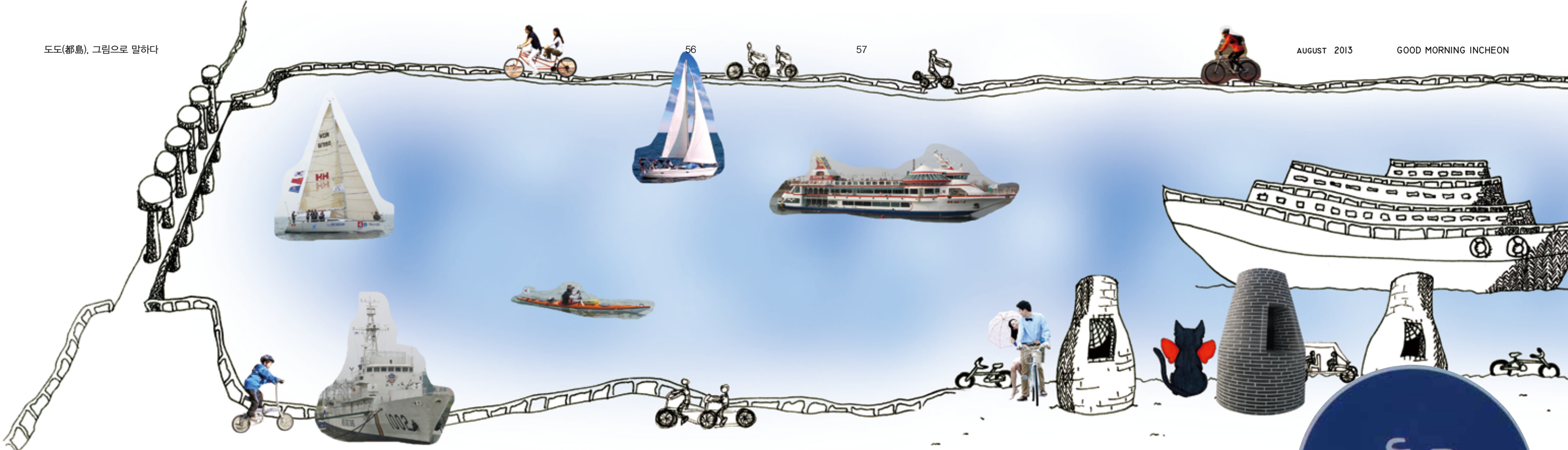
경인항(인천터미널)에는 2개의 갑문이 설치돼 있다. 이 갑문을 통해 서해와 뱃길이 연결된다. '열려라 참깨'. 슬라이딩 형태로 만들어진 갑문이 스르르 열린다. 인천 바다와 수로의 물 높이가 맞춰지면 선박이 이 문을 통과한다. 큰 물통 안에 물이 차오르고 빠지고 하는 장면은 이곳과 인천항에서 볼 수 있는 진귀한 모습이다. 수위를 조절해 배를 밀어내 통과하는 시간은 약 22분 정도 걸린다. 이제 배는 힘차게 바다로 나가거나 혹은 아라뱃길로 들어 온다.



정서진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 길의 출발지점이다. 아라서해갑문을 출발해 한강, 문경새재길을 거쳐 낙동강 하구둑에 도착하는 코스다. 산 넘고 물 건너 들판 지나 거리는 총 633km. 나도 한번 달려봐? 두 바퀴의 도전정신을 불태우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갑문 옆 함상공원에는 해양경찰의 '1002함'이 있다. 1982년 첫 임무였던 울릉도 해역 경비를 시작으로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30여 년간의 임무를 마친 퇴역함이다. 명퇴한 이후에도 1002함의 업무는 끝나지 않은 듯하다. 30여 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추억에 잠겨있다. 1000톤에 달하는 배가 해양을 가르던 웅장한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친근함으로 변해있다. 이제는 지난 날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재미나게 풀어낸 해경홍보와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유람선만큼 가슴 설레는 휴가도 없을 거다. 아라뱃길에서는 서해의 ‘뱃길’을 누빌 유람선이 준비돼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기점이었던 팔미도와 인천대교의 무지개 빛 야경을 느낄 수 있는 팔미도&인천교 투어코스와 여의도에서 아라뱃길, 덕적도까지 이어지는 여의도~덕적도 테마투어코스가 있다. 좀더 화려하고 낭만적인 뱃길을 즐기고 싶다면 디너크루즈를 눈여겨보자. 화려한 크루즈 선상에서 즐기는 각국의 전통문화공연, 그 뒤로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야경과 뷔페는 품격있는 여름밤을 완성시켜줄 것이다. 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하이라이트. 아라뱃길 유람선 위에서 한여름 밤의 꿈을 꾼 볼까.

하늘 높게 솟은 아라리움은 아라뱃길 홍보관이다. 1층에서는 갑문, 선박 운항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아라뱃길의 역사와 주요시설을 시뮬레이션 영상과 모형, 3D 영상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3D 입체영상관은 11시 20분, 14시 20분, 15시 20분, 16시 20분 마다 상영된다. 23층의 전망대에서는 홍보관에서 본 아라뱃길의 실제모습과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영종대교가 목록히 서있고 그 너머로 멀리 영종도, 신도, 세어도... 크고 작은 섬들이 물 위에 잠기듯 신비로이 떠 있다.



경인아라뱃길에는 뱃길 옆에 시민이 즐겨 타는 자전거 · 인라인 도로가 있다. 이 도로는 한강자전거도로, 아라김포터미널과 연결되고 한강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하천 자전거도로와 이어져 서해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일주가 가능해 자전거 마니아들의 기대가 한껏 높다. 그런데 이거 뱃길, 배가 다니는 길 아닌가. 배보다 배꼽, 아니 자전거? 하루빨리 저 뱃길에 화물선은 물론 여객선, 요트 등이 꽉 찼으면 좋겠다. 자전거 길로 쓰기에는 고려시대 조상님들 뽕 면목이 없을 듯하다.

뱃길 중간 시천가람터에 아라뱃길의 역사를 보여주는 봉수마당이 있다. 봉수대는 조선시대 통신수단이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봉수마당에는 봉수대 이외에도 정자, 누각, 전통 담장 등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경인아라뱃길의 1경은 서해, 2경은 아라인천여객터미널, 3경은 시천가람터, 4경은 아라폭포, 5경은 수향원, 6경은 두리생태공원, 7경은 아라김포여객터미널, 8경은 한강이다.



동감(同感)하면 감동(感動)한다

글 최미라 (사)여성인권 동감 대표



‘동감(同感)하면 감동(感動)한다’. (사)여성인권 ‘동감’은 같은 의견과 생각을 통합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단체다. 동구 송현동 송현시장 입구에 자리 잡고 지역사회 내 한부모 · 비혼모 · 어르신뿐 아니라 성별 · 연령 ·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이 되고자 발돋움을 시작했다.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고통 받는 소외된 여성들의 괴리를 해소하고 복지를 향상하며, 양성의 평등을 구현해 여성들이 주체자로서 삶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행복과 희망, 성장이 공존하도록 지역사회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감의 모토이자 모두 함께 이어가야 할 중요한 정신은 ‘누구의 시선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다. 지역사회 활동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각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구조 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관찰하고 서로의 고충을 느끼며 다각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동감에서는 ‘동구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풍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소소한 정을 느끼며 어려움과 행복을 나누는 ‘희망실현의 창구’가 마련됐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 및 동감의 활

동가, 회원들의 몸과 마음, 의식과 행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이자 나아가 ‘지역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열정과 패기로 뭉친 동감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달릴 것이다. 지금부터 겪어야할 다양한 경험, 행복, 희망뿐 아니라 고통, 슬픔, 눈물, 희망실현의 창구를 통해 ‘진실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뿐 아니라 다음세대도 살면서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는 나를 잡아 주는 닻이며, 길을 알려 주는 북극성이다. 가치는 책에서 찾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영혼에서 찾을 수 있다.’ – 앤 멀카히(Anne Mulcahy) 제록스 회장

지역 운동의 중요한 핵심은 주인의식과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론이나 말보다 발로 먼저 뛰는 것이다. 또한 서로 힘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사회변화를 위해 함께 주체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으로 되새긴다. ‘가장 어려웠던 것도 사람 때문이었고 가장 힘이 날 때도 사람 때문이었다. 희망은 곧 사람이다.’



애꿎는 아빠 분신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으로 분신(分身)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빠 분신들이 이 빌딩 저 건물 앞에 온종일 섰습니다. 생이별한 지 13년. 강산이 변했고 아빠와 딸의 모습은 더 많이 바뀌었지만 서로 한눈에 알아 볼 것입니다. 준원아, 아빠가 기다리신다. 이제 돌아오렴.

(남동구 구월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